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 '교착소'와 '교착법'의 설정을 제안하며

임 흥빈 **

1. 목적

본고는 국어에 과연 굴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¹⁾ 국어에 굴절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원리적

*본고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97-01-1001 농협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대 대학원의 이은섭, 박재연, 문숙영 교수이 연구보조원으로 도움을 주었다. 본고의 마지막 절을 제외한 앞 부분은 1997년 12월 12일 제24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에서 "교착소와 교착법의 정립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도움말을 준 서강대의 한동완 교수, 조선대의 강옥미 교수, 고려대의 김양진 학생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본 논의 중 일부는 1988년 2월 22일 한국언어학회 겨울연구회에서 "국어의 활용에 대한 통사적 기술"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를 임홍빈(1988가)로 나타내기로 한다.

** 본과 교수

1) '굴절'에 대하여 '굴곡'이라는 술어를 쓰는 일도 있다. 그 개념이 특별히 다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굴곡'이라는 술어는 허웅(1963, 1975)에서 볼 수 있다. 허웅(1995)에서 활용은 "씨끌바꿈"이란 술어로 바뀌었으나 '굴곡'이란 술어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형태론 (3)"의 부제는 "준굴곡론(토씨)"과 같이 되어 있다. 김석득(1992)에서도 '굴곡'이란 말이 쓰이고 있다.

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국어에 굴절을 상정하는 것은 통사적인 범주를 형태론적인 범주로 전환시키는 재구조화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그에 더하여 체언이나 용언에 붙는 형식들을 하나의 단위로 끓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국어의 곡용 및 활용의 문제는 임홍빈·장소원(1995)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졌다. 본고는 임홍빈·장소원(1995)에 제시된 기본적인 생각들을 기초로 하여, 더 다듬고 정련해서 국어의 굴절이 가진 원리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우리는 국어에 굴절소와 굴절법이 아닌 교착소와 교착법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어 문법에서 굴절의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는 드물다. 국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조사나 어미가 선행 요소에 결합하는 교착적 방법이라고 할 때, 굴절의 문제는 국어의 유형적 특징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서 국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단 받아들인다고 하여 보자.

(1) 국어의 굴절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

- 가. 국어의 용언은 활용을 한다.
- 나. 국어의 체언은 곡용을 한다.
- 다. 국어의 굴절은 곡용과 활용으로 이루어진다.
- 라. 국어는 굴절을 가지는 언어이다.

(1가)는 우리 문법의 기본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국어에서 활용의 존재는 최현배(1930)의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이후 거의 의심을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러나 정말로 (1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1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국어의 문법적인 논의는 실제로 많은 부분 그 성격이 왜곡된다.

(1나)는 우리 문법에서 흔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문법[1985/1991] 및 학교 문법[1996]은 체언의 곡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체언이 조사를 가지는 일을 흔히 음운론에서는 흔히 ‘곡용’ 범주로 다룬다. 그러나 과연 국어에 곡용 범주라

는 것이 정말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존재하는 것인가? 또 그 굴절은 체언의 곡용과 용언의 활용으로 가지런한 체계를 이루는 것인가? 그 동안 음운론이 쌓아온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어의 굴절이 곡용이나 활용의 가지런한 체계를 이룬다는 믿음에 이르기 어렵다.

(1가)와 (1나)를 인정하자마자, 우리는 국어가 (1다)와 같이 굴절의 전 체계를 가진 언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²⁾ (1라)의 '굴절을 가진 언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굴절어'라는 것이 된다. 그 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이를 아래에 (2)와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2) 굴절을 가진 언어는 굴절어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2가)와 같은 물음에 직면한다.

(3) 국어의 문법적 성격에 근원적인 물음

가. 국어는 굴절어인가?

나. 아니다. 국어는 절대로 굴절어가 아니다. 국어는 교착어이다.

국어는 분명히 '굴절어'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굴절어가 아닌 국어에, 곡용 체계와 활용 체계라는 가지런한 체계를 설정하는가?

위와 같은 문제는 국어의 굴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의 성격을 띤다. 그 가운데 한 문제는 국어 어미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다. 전통 문법은 어미를 용언의 어간에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1970년대 후반 변형 문법적인 접근이 이루어 낸 큰 업적의 하나는 국어의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연결된다는 것이었다. 석경징(1976)에서는 '문장 종결사(Sentence Ender)'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어미 문제에 대한 인식의 큰 변화이다. 필

2) 이에는 다소 과장이 있다. 독일어나 러시아어와 같은 경우, 명사와 관련하여 그 앞에 오는 관사나 결정사 혹은 형용사가 모두 일치된 굴절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국어의 경우, 이러한 일은 없다. 따라서 굴절의 전적인 체계라고 할 경우, 그 가리키는 범위는 다소 제한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언과 용언이 굴절을 한다고 할 때, 그것에 포함되는 부류는 적지 않다. '굴절의 전적인 체계'라는 말은 그렇게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자는 임홍빈(1981)에서 문미(文尾)라는 술어를 사용한 바 있다.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문장 어미가 NP-VP-SE에서와 같은 위치에 상정되었다. 임홍빈(1987)에서는 보문자와 활용소를 문장 전체와 관련되는 위치에 상정하였다. 서정목(1987)에서는 ‘문말 형태소’나 ‘선문말 형태소’와 같은 술어가 도입되었고, 서정수(1989)에서는 NP-VP-SE와 유사한 NP-VP-AUX와 같은 구조가 상정되었다. 임홍빈(1989)에서는 통사적 파생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조재옥·모간(1988)에서는 등위 구조를 중심으로 구적 접사 문제를 제기하였다. 윤정미(1990), 이성범(1990), 윤혜석(1991) 등에서는 등위 접속 구성을 서술하면서 굴절 요소의 범위 문제가 다루어졌다. 고영근(1993)에서도 어미가 문장 전체와 관련하는 구조가 상정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활용이라는 것은 문장을 단위로 한다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활용 체계가 어떤 하나의 안정된 상태로 유지, 정착되기 어렵다. 문장은 결코 안정적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른 절차를 상정하지 않고는 국어의 어미가 용언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되지 못한다.

굴절 논의와 관련되는 다른 문제의 하나는 국어의 활용 체계의 수립이다. 선어말 어미나 어말 어미가 모두 활용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활용 체계의 수립은 거의 바랄 수 없는 일이 된다. 우리 논의는 주로 용언의 활용 문제에 집중된다. 체언과 조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리적인 면만을 중시하기로 한다.

2. 국어 굴절 설정의 역사적 연원

국어 문법에 활용을 정립한 것은 최현배(1930)로 알려져 있다. 최현배(1930)에서의 논의는 어간과 어미를 따로 분리하여 그 각각에 품사를 주는 분석적 설명법에 반대하여 출발한다. 최현배(1930)은 이들을 분리하지 않는 자신의 방법을 종합적 설명법이라 하여, 분석적 설명법의 부당성과 종합적 설명법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내용을 번역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은 다

소 바꾸어 여기에 가져오기로 한다.

(4) 최현배(1930)에 제시된 종합적 설명법의 근거

- 가. 종합적 설명법이 말의 본성에 더 맞는다. 분석적 설명법은 ‘붉다, 붉게, 붉은’에서 ‘붉-’과 ‘-다, -게, -은’을 따로 갈라서 ‘붉-’은 형용사로, ‘-다, -게, -은’은 토[조사]라고 하나 ‘붉-’과 ‘-다, -게, -은’은 따로 떼어서 이해 할 수 없다.³⁾ 분석적 설명법은 너무도 이론적, 어원적 설명이다. 말 자체의 본질을 파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나. 분석적 설명법은 그 자체 안에 주도(周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다, -는다, -ㄴ다, -고, -으면, -지마는’은 물론, ‘-ㄹ, -을, -는, -은, -ㄴ’에까지 독립적인 품사의 자격을 주었으면서⁴⁾ ‘-게, -ㅁ, -음, -기’에는 독립 된 단어의 자격을 주지 않았다.⁵⁾ 이는 전후 정제한 풀이가 되지 못한다.
- 다. 종합적 설명법은 말의 이해에 편의하다. 분석적 설명법은 말의 종합적 성 질에 맞지 않음으로 써 놓은 것을 알아보기에 불편하다. 분석적 표기는 ‘그러하ㅁ’과 같은 표기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함’과 같은 표기는 종합적 설명법의 표기이다.
- 라. 종합적 설명법은 말의 발달에 적합한 설명을 하게 된다. 분석적 설명법에 의하면 말이 외형상 복잡해지게 발달한 것도 도로 어원적으로 분석해 써 야만 하게 된다. ‘다른, 모든, 가즌, 구든, 열음, 천천히, 조곰’ 등도 두 품 사로 갈라 써야 할 것이다.

3) 최현배(1930:70)에는 홍기문의 설명이 소개되어 있다. 홍기문은 형용사와 동사는 토의 보좌를 받지 않고는 쓰이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 출전이 밝혀져 있지 않다. 1930년 이전의 논의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확인되지 않는다.

4) 주시경(1910:87-89, 106-107)에서 ‘간, 먹은, 가는, 먹는, 갈, 먹을, 가던, 먹던’ 등은 음기가 언기로 된 것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최현배(1930)의 언급은 적어도 주시경(1910)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김두봉(1916, 1923)에서 ‘-ㄴ, -은, -던, -ㄹ, -을’ 등은 ‘것’에 속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김두봉(1916, 1923)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두봉(1916, 1923)에서 ‘-게’도 ‘것’에 속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렇게만 도 보기 어렵다. 최현배(1930)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몇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주시경(1910)에서 ‘-게’를 가진 ‘빠르게, 모질게, 착하게’ 등은 ‘억의 갈래’ 가운데 “엇덤”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게’는 독립적인 품사로 취급되지 않은 것이다. 명사화소 ‘-ㅁ’이나 ‘-기’에 대해서는 “기몸박금”의 ‘엇본임’과 ‘음본임’에서 다루고 있다. ‘검기, 가기’ 등은 본래 ‘엇기’나 ‘음기’였던 것이 ‘임기’가 된 것으로 본다. ‘-게, -ㅁ, -기’ 등은 적어도 주시경(1910)에서 독립적인 품사가 아니다. 위의 주 4 참조.

- 마. 도움 움직씨[보조 동사]를 설명함에 있어 종합적 설명법이 편 유리하다.⁶⁾
당시까지는 도움 움직씨[보조 동사]를 문법에서 나루지 않았으나, 이를
나루기 위해서는 종합적 설명법을 취해야 한다.
- 바. 김두봉은 주시경이 따로 뗀 '-(으)시-, -았/었-, -겠-'과 같은 것을 움직
씨애나 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까지는 붙이지 아니하였다. 아직
온전한 종합이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사. 박승빈이 말하는 용언의 활용은 단순히 일본 문법을 흡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⁷⁾ 분석적 설명법도 예전에는 맞는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
간의 변화에 따라서 종합적 실제적 요구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중 우리에게 다소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근거를, 조사의 경우를
참고하여 다시⁸⁾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최현배(1930) 중 다소 설득력 있는 근거

- 가.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분리성을 가지지 않는다.⁹⁾
- 나. 한국인은 어간과 어미를 한 단위로 인식한다.¹⁰⁾

6) 도움 움직씨[보조동사]는 움직씨의 한 갈래이다. “으뜸되는 풀이씨의 아래에서(주장으로
그 감목법의 아래에서) 그것을 도와서 월의 풀이를 완전하게 하는 움직씨”이다. 최현배
(1937=1959:386)에서는 피동, 사동 접미사도 하임 도움 움직씨나 입음 도움 움직씨로 설
정된다.

7) 최현배(1930:72)는 박승빈의 “조선어 체계 일람”을 참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30년 이
전 본인 “조선어 체계 일람”은 지금 볼 수 없다. 그런데, 박승빈(1937) 끝부분에 “조선어
체계 일람”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1930년 이전의 것과 내용이 전적으로 동일한 것인
지 확실치 않다. 용언의 활용 상태가 매우 정제된 체계를 보인다. ‘잡다’와 같으면 ‘잡-’이
용언이다. ‘이, 하, 리, 기’와 같이 ‘태’를 나타내는 것, ‘-(으)시-’와 같이 존경을 나타내는
것, 과거, 미래(추량)와 같이 시상을 나타내는 것 등은 조용사(助用詞)이며, ‘-(으)며, -고’
와 같은 어말 어미는 “조사”이다. 박승빈(1935:225)에서와 같이, ‘기다리-[待]’와 같으면
‘기다’를 어간으로, ‘리’를 어미라고 하는 것과 같은 처리는 보이지 않는다. 박승빈(1937)
끝부분에 있는 “조선어 체계 일람”은 수정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8) 후술할 (7) 및 (8)을 참고하기 바란다.

9) (4가)의 “-붉-”과 “-다, -게, -은”은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없다”와 같은 언급이 이와 같
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4다)에 대해서는 표기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예로 들었으나, 이를 여기서는 인식의 문
제로 보았다. 체언에 대한 (7마)가 참작되었다.

다. 국어에는 활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 현상이 있다.¹¹⁾

(5가)는 (5나)의 다른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이 둘을 분리한 것은 체언의 경우를 참작한 것이다. (5가-다)도 어느 것이나 국어에 활용을 설정하는 결정적인 근거라고는 할 수 없다. (5나)에서 말하는 어간과 어미에 대한 단위 인식의 문제는 결국 심리적인 문제이다. 상당한 정도까지는 교육에 의하여 단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다.

조사가 독립된 품사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최현배(1937=1959)이다. 최현배(1937:222-228, 1959:190-196)에서는 조사가 독립적인 품사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6)과 같이 들고, 그에 대한 반론을 아래의 (7)과 같이 펴고 있다.

(6) 최현배(1937=1959)에 인용된, 조사가 독립 품사가 되기 어려운 점

- 가. 조사에는 두음 법칙을 어기는 것이 있다.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때의 음운 현상도 합성어를 만들 때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다.
- 나. 조사는 선행어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 있다. 이는 조사가 선행어의 종속적 부분임을 의미한다.
- 다. 조사는 독립적인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한다. 항상 선행어에 붙어서 문장 성분을 이룬다. 조사는 문두에 쓰이는 일이 없다.
- 라. 조사도 어미와 같이 체언의 일부로 봄이 옳다.
- 마. 조사는 교착어나 첨가어란 특성에서 보아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씨가지이다.

(7) 가. 말의 모든 문제를 소리로만 규정할 수 없다.

- 나. 조사는 종속성이 있으면서도 제 특유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영어의 부정 관사도 뒤에 오는 말에 따라 a도 되고 an도 된다.
- 다. 종속적 용법이 곧 품사의 독립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의 전치사가 그렇다.
- 라. 용언의 어간은 독립성이 없으며 어미와 분리되기 어려우나, 체언은 독립성을 가지며 체언과 조사는 분리되기 쉽다.
- 마. 조사는 독립성과 분리성이 있어 독립된 품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한

11) 적어도 (4마)가 이와 관련된다.

국인의 언어 의식이 체언과 조사를 하나의 품사로 보지 않는다.

- 바. 조사의 수가 많고 겹쳐 쓰이는 일도 많다. 이를 전부 체언의 변화로 본다면 그 변화는 수백 종에 이를 것이다.
- 사. 조사를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고 선행어와 띄어써야 가로쓰기[풀어쓰기를 말함]를 할 때 많은 표기상의 중의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아. 조사에 독립 품사의 자격을 주는 것이 옳다. 조사는 생각씨에 종속적으로 쓰이나 그와 따로 서서 독립된 품사가 될 수 있다.

(7)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 (8) 가. 조사는 독립성과 분리성을 가진다.

나. 한국인의 언어 의식이 체언과 조사를 합쳐서 하나의 품사로 보지 않는다.

(5)와 (8)을 비교 종합할 때, 국어에서 용언의 활용을 인정하고, 체언의 곡용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분리성'이라는 것이 된다. 한국인의 언어 의식도 그 분리성에 대한 의식이다. 이를 우선 (8가)와 같이 정리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나 관련 사항을 (8나, 다)에 보이기로 한다.

- (9) 최현배(1930, 1937)에서의 어미와, 조사 설정의 근거

어미와 달리 조사는 독립성과 분리성을 가진다.

- (10) (9)에 대한 의문

가. 어미나 조사의 분리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판단은 한국인의 언어 의식을 기준으로 한다.

나. (9)는 어디까지나 정도상의 문제이다. 한국인의 언어 의식에서 조사가 어미와 달리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최현배(1930:73)에서는 '어미'(최현배(1930)의 술어로 이는 '씨끝'이나 '끝' 혹은 '종결사'이다)를 "termination", 어간을 "Stem"과 같이 적고 있다. 이들 술어는 언더우드(1890:94)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언더우드(1890)에서 용언의 기본 활용은 '어간(stem)'과 '시제 어근(tense root)'과 '어미(termination)'로 나뉘는 것이다. "어간(Stem)"과 "어미(씨끝/끝/종결사, termination)"가

최현배(1930)의 술어와 같다. 이러한 일치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언더우드(1890)의 인식은 최현배(1930)적인 처리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더우드(1890)는 조사를 후치사로 설정하고 곡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현배(1930, 1937)와 다르지 않다. 최현배(1937/1959:197)에서 조사에 대응하는 이름으로 상정된 명칭이 “뒤토씨[後置詞]”라는 것도 언더우드(1890)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에 대한 언더우드(1890:72)의 인식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것이다. 언더우드(1890)에 의하면 한국어 문법에서 명사에 붙는 수많은 단어 부류 중에서 자의적으로 몇 개만을 선택하여 격 굴절을 상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지적이다.¹²⁾ 언더우드(1890:72)의 어원적인 형식과 그 변화형에 대한 언급도 최현배(1930:72-73)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언더우드(1890)은 리델(1881)을 기초로 한 것이 틀림없다. 리델(1881:62)의 활용은 받아들였으나, 곡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델(1881)은 로니(1864)와 같이 “어미”를 “terminaison”으로 불렀다. “씨끝”이란 말의 원천이다.

격 굴절을 상정하는 데 대한 언더우드(1890)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11) 한국어의 격 굴절 설정에 대한 언더우드(1890:72)의 비판

- 가. 명사에 붙는 수많은 단어 부류 중 자의적으로 몇 개만을 선택하여 격 굴절을 상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이다.
- 나. 일부의 형태가 격 굴절이라면, 나머지도 모두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 다. 그러나 (11나)와 같은 방법은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한다. 이를 모두를 독립된 단어나 후치사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언더우드(1890)는 왜 곡용을 상정하지 않았는가? (11나)는 그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제공한다. 국어의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곡용 범주의 상정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서구어의 곡용 범주가 잘 들어맞지 않은 것이다. 격 표시 기능의 조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격 굴절을 곡용으로 인정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조사가 곡용

12) 최현배(1930)에서 이러한 사실은 중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체언 교착소가 조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였지, 격인가 아닌가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범주 바깥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 범주의 설정이 가능했나? 어미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활용 범주가 서구어 문법에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어떻게 어미에 대하여 활용 범주를 설정한 것인가? 어미는 조사보다 그 문법적 기능이 서구어적인 활용과 근접한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언더우드(1890)에 상정된 평서문, 의문문의 직설법(indicative mood), 청유문(propositive), 명령문(imperative)의 의지법(volitive mood) 등은 그들 문법에 있었던 것이며 그것에 국어를 뜯어맞춘 것이다. 언더우드(1890)은 서법(mood) 외에도, 부사형 어미를 가진 형식을 용언 분사(verbal participle)로, 관형사형 어미를 가진 것을 관계 분사로, 연결 어미를 접속사로, 명사형 어미를 가진 것을 동명사(verbal noun)로 설정하였다. 모두 그들의 문법 범주에 있었던 것이다.

최현배(1930)는 언더우드(1890)적인 서법, 분사, 접속사, 동명사 범주 등을 모두 포괄하여 국어의 활용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개념은 역시 서구어 문법적인 것이다. 최현배(1930, 1937)에서 명백히 하지 못했던 것은 국어에 활용이라는 것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분명 기능-의미론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형태론적인 서구어의 굴절과 뚜렷이 대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국어의 경우는 어미의 의미 기능이 그 자체로서 활용 굴절의 범주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2) 국어 굴절의 성격

국어에 과용 굴절이든 활용 굴절이든 굴절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조사나 어미의 의미 기능이 그 자체로서 굴절 범주를 형성하는 기능-의미론적인 굴절의 성격을 띤다. 이는 서구어의 굴절이 기본적으로 형태론적인 성격을 띠는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서구어의 굴절을 “형태론적인 굴절”이라 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하여, 가령 국어에 굴절을 설정한다면 그 굴절은 “의미론적인 굴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2)를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우리말에 있어 굴절 범주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약정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람스테트(1939)에서처럼 활용 외에도 조사 가운데서구어적인 격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조사들을 따로 분리하여 “격

어미(case ending)"라 부르는 것도 하나의 약정이며, 이들이 선행 체언에 연결되는 것을 곡용(declension)이라 하는 것도 약정이다. 조사 가운데 격 어미 외의 다른 것은 달리 처리해야 한다. 이승녕(1961)에서는 '은/는, 이, 의, 예, 을, 으로, 와/과, 이라, 아/야/여/하' 등을 일반격 형태로 상정하였다. 후치사들도 그 자체로나 격과 합쳐 격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곡용은 일반격 형태들로 이루어진다. 이 또한 약정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허웅(1963:187-193)에서는 용언이나 체언에 어미나 조사가 붙는 것을 모두 굴곡(屈曲)으로 본다. 보조사도 굴곡에 포함된다.¹³⁾ 이 또한 약정이다. 허웅(1975:31)에서 굴곡법은 활용과 준굴곡법으로 나뉜다. 준굴곡법은 뿌리에 토씨가 연결되는 것이며, 활용은 뿌리에 씨 끝이 연결되는 것이다. 허웅(1963)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모두 서구어 문법에 그 근원을 두는 것이다. 언어 현상이 본래 약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므로, 서구어 문법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굳이 막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본래 우리말에 "활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용언에 문법적인 요소들이 부가(또는 첨가) 혹은 교착되는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활용이라 부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활용"이란 것이 굴절어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은 국어를 서구어의 유형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문법을 근원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활용이나 곡용, 즉 굴절과 같은 문제의 차원을 떠나 새로운 명명법과 함께 새로운 문제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선은 새로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다. 종래 굴절법이라 불리던 현상에 대해서는 "교착법(agglutination)"이나 "첨가법(addition)"과 같은 이름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활용이라는 것은 "용언구 교착"과 같은 것이 되며, 곡용 혹은 체언에 조사가 붙는 일은 "체언구 교착"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명명법은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과 부합하는 체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서구어 문법의 외투를 어느 정도는 벗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명명의 체계를 따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3) 보조사 처리가 선명하게 드리나 있지 않으나, 굴곡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허웅(1963:188)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도 보았다'와 같은 예가 소개되어 있다. 밀줄 친 '는, 도'는 3류 형태소로 되어 있다.

(13) 새로운 명명의 체계

- 가. 굴절법⇒교착법/첨가법
- 나. 활용/활용법⇒용언구 교착법, 또는 문미 교착법/첨가법.
- 다. 곡용/곡용법⇒체언구 교착법, 또는 조사 교착법/첨가법.

(13나)의 “용언구”는 어미가 용언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성(이를 용언구로 본다)에 연결됨을 중시한 것이다.¹⁴⁾ (13다)도 체언이 아니라 체언구에 연결됨을 중시한 것이다. 체언구 교착법은 체언구에 조사가 연결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조사 교착법”은 선행어에 조사를 첨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그 포괄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후자가 더 넓다. 조사는 체언구나 또 다른 조사구 또는 부사구나 용언구의 부사형에 연결된다. 체언구 교착법이라고만 하면, 조사구나 부사구나 부사형 뒤에 조사가 연결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확성의 측면에서는 조사 교착법이나 문미 교착법이란 술어가 더 바람직하다.

3. 굴절과 파생의 차원을 넘어

국어의 어미에 대한 우리의 학교 문법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다.

- (14) 가. 용언과 서술격 조사는 활용을 한다.
- 나. 활용형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 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14가)에는 근원적인 문제와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 부수적인 문제는 서술격 조사가 활용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¹⁵⁾ (14가)에 포함된 근원적인 문제는,

14) 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15) 이는 범주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다’는 우리에게 있어 형용사이다. 교착소가 붙는 양상이 형용사와 다르지 않다. ‘이다’만 따로 부를 때는 ‘지성 형용사’란 이름이 적합하다.

정작 활용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어미가 용언의 어간에 붙는 것이라면, 활용을 하는 것은 용언이 된다. 그러나 어미가 문장에 붙는 것이라면, 문장이 활용을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장이 활용을 한다는 것은 굴절어에서 는 그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활용이 아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국어의 어미는 단순히 용언의 어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국어의 활용은 절대로 평범한 의미의 활용이 되지 못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15) 가. 어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어미는 어디에 붙는 것인가?

나. 최근의 인식: 어미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문장에 붙는다.

(15나)를 인정하면, (14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것은 없어진다. (15나)에 의하면 문장이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이 어간이 되고 나머지가 어미가 된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14나)를 인정하려면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¹⁶⁾

(14다)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정말로 “어미”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미”는 그 말 자체의 의미에 의하여 단어의 끝에 오는 것이다. “선어 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지 않는 것이다. 단어의 끝에 오지 않는 것이 어떻게 “어미”인가?

람스테트(1939:33)에서 “선어말 어미”는 “접미사(suffix)”로 불린다. 어말 어미는 대부분 그냥 “어미(ending)”이거나 “접미사”이다. ‘보더라’와 같은 예의 ‘-더-’는 접미사 ‘-더-’로 지칭된다. 이 예의 ‘-라’가 첨사(particle)로 불리는 것이 특이하다. 마틴[Martin](1954:5)에서는 “비어말 굴절 접미사(non-final inflectional suffix)”란 말이 쓰인다. 안병희(1959)에 쓰인 것은 modal suffix[서법 접미사](혹은 final suffix[어말 접미사])와 premodal suffix[先敍法 접미사](혹은 prefinal suffix[선어말 접미사])와 같은 술어이다.¹⁷⁾ 이승옥(1963)에 쓰인 것도

임홍빈(1992, 1997) 참조.

16) 이에 대해서는 ‘6. 재구조화와 굴절 범주의 설정 문제’의 (91)과 관련된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선어말 접미사(prefinal suffix)”이다. 이러한 용어들에 기초해서 “선어말 어미”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결함이 가장 많은 말이 선택된 것이다.

선어말 어미를 왜 어미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음에서 보기로 한다.

(16) 가. 남기심 외(1985:147-8)에서의 이유: [종전의 전통 문법과 학교 문법에서 파동, 사동의 요소들은 접사로 본다] 나머지 보조 어간은 모든 어간에 두루 붙어 일정한 문법 범주를 표시하므로 선어말 어미로 보는 것이다.(밀줄 필자)

나. 안병희(1959=1978:6-7)에서의 이유: [선어말 접미사는] 형태론적 목록 작성(morphological listing)이 간단하며, 공통성이 있고, 광범한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단일 형태소(혹은 여러 형태소)로 된 어간이면 다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군절적인 것이므로 어미에 귀속된다.](밀줄 필자)

(16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선어말 형태가 모든 어간에 두루 붙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일정한 문법 범주를 표시한다는 것이다. (16가)의 이유는 어말 어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어말 어미도 모든 어간에 두루 붙어 일정한 문법 범주를 표시한다. 달라질 것이 없다. 위치적인 조건 외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를 구별할 수 있는 원리가 없다. (16가)만으로는 선어말 형태가 어미라는 것을 확증할 수 없다.

(16나)는 안병희(1959=1978:6-7)의 논의를 종합한 것이다. (16나)에 제시된 근거도 (16가)와 유사하다. 분포가 광범하다는 것과 모든 어간에 두루 붙는다는 것이 같다. (16나)의 “공통성이 있다”는 것은 내용이 불투명하나, (16가)의 “일정한 문법 범주를 표시한다”는 것에 대당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형태론적 목록 작성(morphological listing)이 간단하다”는 것은 (16가)에서는 지적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군절 접사는 파생 접사보다 그 수효가 적음을 뜻한다. (16나)의 기준들은 나이다[Nida](1946/1978:99)적인 것이다.

(16나)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밀줄 친 부분 “어미에 귀속된다”는 말이

17) 여기 대괄호 속에 보인 우리말 술어는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다. 그것은 선어말 접미사가 바로 어미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6나)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용언의 굴절형을 둘로 나누는 문제이다. 예컨대 ‘먹었다’와 같은 형식을 어간과 어미로 나눌 때, ‘먹었-’과 ‘-다’로 나눌 것인가 ‘먹-’과 ‘-었다’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다. (16나)에서 밀줄 친 부분이 말하는 것은 ‘-었-’은 어간이 아니라, 어미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먹었다’는 ‘먹-’이라는 어간과 ‘-었다’란 어미로 나뉘며, ‘-었다’가 전제적으로 어미가 된다. ‘-었-’은 어미 속에 포함된 것일 뿐, ‘-었-’ 자체가 어미라는 것은 아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17) 안병희(1959)에서의 선어말 형태의 지위

- 가. 선어말 형태는 어미에 포함된 부분이다.
- 나. 선어말 형태는 온전한 의미의 ‘어미’가 아니다.

이와는 대조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최현배(1937/ 1959:159-160)이다. 최현배 (1937/1959)에서 선어말 형태는 “도움 줄기[보조 어간]”라 불린다. “도움 줄기”는 어미가 아니라 어간의 일부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8) 최현배(1937/1959)에서의 선어말 형태의 지위

- 선어말 형태는 도움 줄기[보조 어간]로 어간의 일부이다.

최현배(1937/1959)에서 선어말 형태를 어미의 일부로 보지 않고 어간의 일부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 최현배(1937/1959:159-160)에서의 보조 어간 설정 이유

도움 줄기는 역시 줄기의 한 조각인즉, 한번 들어간 다음에는 다른 줄기와 같이, 고정적 상태를 취하여 바꾸히지 아니하고, 다만 그 아래에 붙는 씨끌만이, 일본스런 결림(관계)을 표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끝바꿈할 따름이니: 보기하면, ‘가시 (다, 는, 어, 기, 면, 고)’에서 도움 줄기 ‘시’가 원줄기 ‘가’와 함께 붙박혀서 동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19)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선어말 형태를 가진 형식도 어미를 취하는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원리적으로 활용이라는 것을 어간이 일정한 집합의 어미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면, 어간에 붙는 어미의 집합과 확대된 어간에 붙는 어미의 집합이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선어말 형태는 어간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어미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여 보자. 단순히 양면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정확한 성격이 밝혀져야 한다. 기준의 파생과 굴절의 변별 기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유효한 해결법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스칼리스[Scalise](1984)의 파생과 굴절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가져오기로 한다.¹⁸⁾

(20) 스칼리스(1984)에서의 파생과 굴절의 차이¹⁹⁾

- 가. 굴절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으나 파생은 통사 범주를 바꿀 수 있다.
- 나. 굴절은 파생에 대하여 항상 주변적이다.
- 다. 파생 규칙과 굴절 규칙은 각기 어기의 상이한 특성에 대해 반응한다.
- 라. 파생 규칙과 굴절 규칙은 하는 일이 다르다. 예컨대 파생은 하위 범주 자질을 바꿀 수 있으나 굴절 규칙은 그렇지 못하다.
- 마. 파생 규칙은 어기의 개념적 의미를 바꾸는 데 대하여 굴절 규칙은 어기의 문법적 의미를 바꿀 뿐이다.
- 바. 파생 규칙은 여러 번 적용될 수 있으나 굴절 규칙은 그렇지 못하다.
- 사. 파생 규칙은 완전히 생산적은 아니지만 굴절 규칙은 생산적이다.

국어의 선어말 형태에는 (20가, 나, 라, 마, 사)에서의 굴절 관련 사항을 거의 완전하게 성립시킨다. 특히 선어말 형태가 (20나)를 어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

18) 나이다[Nida](1946/1978:99)에는 위에서 살펴본 형태론적 목록의 차이, 분포상의 차이, 문법적 기능의 공통성과 같은 기준 외에도 파생은 통사 범주를 바꾸나 굴절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는지, 파생은 내적 형성에 참여하나 굴절은 외적 형성에 참여한다든지, 파생어는 근본적으로 단순어가 속하는 통사 범주에 속하나 굴절어는 그렇지 못하다든지 하는 기준들이 더 제시되어 있다.

19) 이들 각각의 기준들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스칼리스(1984: 번역본 131~148)를 참고로 하기 바란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21) 가. [아버지께서 잡히-]-시-었-다
 나. “[아버지께서 잡으시-히-]-었-다

이는 예의 ‘-(으)시-’가 파생적인 요소가 아니라 굴절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기타, (20가, 다, 마, 사)에서의, 굴절 관련 사항도 이를 지지한다. 크게 보면 선어말 형태는 통사 범주를 바꾸는 일도 없고, 개념적 의미를 바꾸는 일도 없으며, 하위 범주화 자질을 변경시키는 일도 없다. 이를 기초로 선어말 형태를 아무런 의심 없이 굴절 요소라고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차이이다.

이 점에서 보면 (20마)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며, (20바)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먼저 (20마)와 관련되는 예를 보기로 하자.²⁰⁾

- (22) 가. 철수의 키가 크다.
 나. '크-'의 의미역 틀: <대상역[Theme]>
 (23) 가. 아버님은 철수의 키가 크신다.
 나. 아버님은 철수의 키가 크다고 생각하신다.
 다. '크시-'의 의미역 틀: <경험주역[Experiencer], 대상역[Theme]>

(22가)의 ‘크-’는 어휘부에서 (22나)에 보인 바와 같이 ‘대상역’의 의미역 틀을 가진다.²¹⁾ (22가)에서 ‘크-’의 대상역 논항은 ‘철수의 키’이다. 다른 문제가 없다. (23가)는 ‘크-’에 선어말 형태 ‘-(으)시-’를 첨가시켜 본 것이다. 이 경우 (23가)의 의미 관련은 (23나)와 같은 것이 된다. ‘아버님’이 경험주의 자격을 가진다.²²⁾

20) 이러한 문제의 일단에 대해서는 1988년 2월 22일 한국언어학회 겨울연구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바 있다. ‘-(으)시-’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임홍빈(1985나)를 참조하기 바란다.

21) ‘철수가 누구에게 크다’와 같은 예에 나타나는 ‘누구에게’의 의미역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

22) 이 때의 ‘경험주’는 심리 서술어에 대하여 상정되는 ‘경험주’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심리적 행동주(mental agent)를 상정해야 정확하다. 특별히 복잡한 문제를 불러들이는 것이

'-(으)시-'가 과생 접사는 아니지만 '크시-'라는 어휘 항목을 상정하여²³⁾ 그 의미역 틀을 상정해 본다면 (23다)와 같이 된다. 의미역 틀의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의미역 틀의 변화는 과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며, 굴절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으)시-'가 결코 단순히 '굴절'에 참여하는 요소는 아님을 의미한다. 선어말 어미 관련 현상은 굴절과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24) 선어말 형태의 특이성 (1) : 의미역 틀의 변화

선어말 형태는 선행 서술어의 의미역 틀에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 있다. 이는 굴절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25) 가. 영희는 처녀 때 예뻤었다.

나. 나는 어제 거기에 갔었었다.

다. ?나는 그것을 먹었었다.

(25가)는 '-았었-'의 예를 보인 것이다. '-았었-'이 이미 하나의 독립된 형태 소가 되는 것으로 보는 일도 있고, '-았었-'을 동일한 두 형태소의 연속으로 보는 일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그 형성이 동일한 형태 '-았/었-'의 겹침이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20바)의 굴절 관련 사항은 국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인구어적인 굴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25나)를 보자. 여기서는 '-았/었-'이 세 번 겹친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갔-' 부분에서 '·ㅆ-'의 기능이 약화되어 '갔-'이 기본 어간처럼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25다)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형태가 바로 이어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지만, '-습-'이나 '-(으)시-'

아니므로, 여기서는 문제를 단순화하기로 한다.

23) 이것이 기본적인 어휘 항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문법에 활용을 상정할 경우, 그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재구조화된 어간'이다. 이에 대해서는 6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와 같은 선어말 형태는 하나의 서술어 뒤에서 되풀이되어 쓰일 수 있다.

(26) 가. 가시는 듯 오시옵소서.

나. 그 분이 오시는템쇼.

얼른 보면 (26가)에는 선어말 형태의 겹침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읍-’이란 형태는 ‘-습-’의 단일한 후대형이 아니다. ‘하오니’와 같은 예의 ‘-오-’가 이미 현대의 ‘-삽-’의 이형태이고, ‘합니다’와 같은 예의 ‘-ㅂ-’이 또한 ‘-삽-’의 이형태이므로, ‘-읍-’은 ‘-삽-’이 두 번 되풀이되어 쓰인 형식이다. 그리고 ‘하읍고’와 같이 ‘-읍-’의 출현이 필수적이 아닌 문맥에서, 그 겹양의 가치는 상승적인 효과를 가진다.²⁴⁾ (26나)의 ‘오시는템쇼’에서는 ‘오시-’에도 ‘-(으)시-’가 있고 ‘-ㅂ쇼’ ‘에도 ‘-(으)시-’가 있다. 동일한 평면에서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으)시-’가 두 번 겹친다. 그 위치만 다를 뿐, 서술어를 달리하여 겹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27) 선어말 형태의 특이성 (2) : 겹침 현상

선어말 형태는 드물게 같은 서술어 뒤에 되풀이되어 쓰일 수 있다. 이는 글 절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²⁵⁾

(28) 가.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오니, 황공하더라.

나.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오시니, 황공하더라.

다. 상감마마 듭시오.

(29) 가. 어제 나는 정말 피곤해 죽겠었다.

나. ??어제 나는 정말 피곤해 죽었겠다.²⁶⁾

24)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85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25) 이들 예는 임홍빈(1988)에서도 다른 것이며,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도 다른 것이다. 거기서는 선어말 형태가 가지는 절대적인 위치가 없다는 예로 제시된 것이다. 본 논의에 서와 같은 문맥에 쓰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지는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서 다시 살필 것이다.

- (30) 가. 어제는 그가 죽었겠다.
 나. ??어제는 내가 죽었겠다.
- (31) 가. 흐수^불시니>흐시수^불니
 나. 흐더시니>흐시더니

(28가)의 밑줄 친 부분 '-시오-'는 (28나)에서와 같이 '-오시-'로 바뀔 수 있다. '-시오-'와 '-오시-'의 차이가 현대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28다)는 그 차이가 원리적으로는 상당히 컸음을 말해 준다. '합쇼'는 하층민의 사회 방언처럼 인식된다. (29가)의 문법성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나, 필자에게 있어 그 성립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9가)와 (29나)는 문장 의미가 전혀 다르다. (29나)는 아주 기묘한 것이다. '-었겠-'이 화자 자신의 신체적인 상태에 대한 기술에 쓰였기 때문이다. (30가, 나)도 성격이 같다. (31가, 나)는 통시적인 변화의 예이다. (31가)는 15세기 '-습-'이 '-(으)시-' 앞 위치에 있었던 것이 16세기를 거치면서 '-(으)시-' 뒤로 오게 된 변화를 보인 것이다. 선어말 형태의 출현 위치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변화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31나)는 '-더-'가 '-(으)시-' 앞에 쓰이다가 '-(으)시-' 뒤로 온 변화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선어말 형태의 출현 위치가 결코 절대적인 고정성을 떠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²⁷⁾

-
- 26) 이 예의 성립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 1997년 12월 12일 제24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에서 서강대의 한동완 교수는 특히 이 점을 지적하였다. 구본관(1992:60)에서는 이 예의 성립이 의심스럽기는 한 것이지만,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성립할 수도 있을 듯하다고 보고 있다. 필자에게 있어서는 '먹었으시다, 먹었겠었다, 먹겠었었다'와 같은 예도 완전히 비문법적인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한동완 교수는 굳이 이러한 예를 들지 않아도 된다는 충고를 해 준 것이지만, 이는 국어의 선문미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교착 소의 출현 위치를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으로만 보려고 한 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 27) 이러한 의미에서 서정목(1988=1994:300)이나 이동재(1992)에서와 같이 선문·비 교착소가 선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원리적으로 특정 형태소의 위치("홈"이나 "Slot")가 고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어도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라고 해야 한다.

(32) 선어말 형태의 특이성 (3): 출현 위치의 비절대적 고정성

선어말 형태의 출현 위치는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의미의 굴절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32)는 (20)에서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20)이 서구어에 나타나는 현상을 전형적인 것으로 삼고 파생과 굴절을 구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27)이나 (32)와 같은 현상은 굴절어에는 없는 것이다. 굴절형을 이루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단 하나의 어미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어에서는 사정이 판이하다. 문법 형태가 겹쳐 나타난다. 서구어를 중심으로 전개된 파생과 굴절의 논리로,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해 온 것이 종래의 접근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어의 활용을 굴절로 보아 어느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현상을 그러한 논리로 통일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국어를 국어답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33) 용언의 활용과 선어말 형태

- 가. 국어의 용언에 선어말 형태가 연결되는 것을 활용으로 다루고 선어말 형태를 어미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문법적 기술이나 설명이 가능하다.
- 나. 그러나 국어의 선어말 형태는 (24)와 같이 아주 미묘하지만 서술어의 의미 틀에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27)과 같이 동일한 선어말 형태가 겹치기도 하고, (32)와 같이 출현 위치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특이성이 인정된다.
- 다. 위의 (나)와 같은 현상은 국어의 선어말 형태가 서구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분인 파생과 굴절의 어느 한 구분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의 선어말 형태를 어미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위의 (나)와 같은 현상을 회생하는 것이며, 국어를 서구어 문법의 틀에 끊어맞추는 것이다.
- 마. 위의 (라)와 같은 방법은 국어를 국어답게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어는 굴절어가 아니라 교착어이기 때문이다.

국어의 조사나 어미 일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34) 국어의 조사와 어미의 특이성

- 가. 국어의 조사나 어미는 통사적인 구성에 연결된다.
- 나. 국어의 조사나 어미는 파생이나 굴절의 어느 한 범주에 정확하게 귀속되지 않는다.

(34)를 받아들이면서도 종래의 굴절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선은 그 성격을 명백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어에 “교착소”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는 물론, 선어말 형태나 어말 형태까지 모두 교착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종래에 활용이나 곡용이라고 불리던 모든 현상은 전부 “교착법”에 속하게 된다. 이는 이미 (13)에 보인 것을 부연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제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35) 교착법과 교착소의 설정 문제

- 가. 물음 1: 용언 구성에 선어말 형태가 연결되는 것은 파생인가 굴절인가?
- 나. 대답 1: 그것은 파생도 아니고 굴절도 아니다.
- 다. 물음 2: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라. 대답 2: 그것은 “교착”이다. 현상 전체를 포괄하여 이름을 붙인다면 “교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착법에 참여하는 요소는 “교착소(agglutinative element)”이다. 그것은 굴절소, 즉 활용 어미나 곡용 어미가 굴절법에 참여하는 것과 평행적이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 마. 물음 3: 어미 관련 현상은 이제까지 활용 혹은 굴절 현상으로 잘 설명되어 오지 않았는가? 무엇 때문에 이제 새삼스럽게 “교착법”이나 “교착소”를 설정하는가?
- 바. 대답 3: 이제까지 어미 관련 현상이 활용이나 굴절로 잘 설명되어 왔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분을 회생한 것이며,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예외로 남겨 두고 하는 말이다. 그것은 굴절어의 패러다임을 국어에 강요하는 것이다. 국어에는 파생도 아니고 굴절도 아닌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여하튼 파생이나 굴절의 이분법 속에서 어!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 온 것이다. 서구어의 굴절소는 형태론적 구성에 참여하는 것인지

만 국어의 교착소는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한다. 이러한 차이만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조사와 어미를 구조소로 다루면 이러한 차이도 회생하는 것이다. 이제 “교착소”와 “교착법”을 설정하면, 그와 같이 무리한 범주화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35)와 관련되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통사적 구성과 교착소

위의 (13)에서 우리는 “교착법”이란 문법 현상을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35)에서는 문제의 형태를 “교착소(agglutinative element)”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²⁸⁾ 이제 교착소가 이루는 구성의 통사적 성격에 주의를 모으기로 하자. 교착소에는 어말 형태나 선어말 형태 및 조사가 모두 포함된다.²⁹⁾ 이들은 그 자체에 고유한 기능 의미를 가지고 통사적 구성에 연결된다. 통사적 구성에 첨가된다는 점에서 교착소는 엄격히 단어 형성 요소와 구별된다. 단어 형성 요소는 어디까지나 단어 형성에 참여하여 새로운 어휘를 생성시키는 요소이지만,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여 더 큰 통사적 구성을 이루게 된다. (13)과 관련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명사나 대명사 및 수사가 이루는 구성은 명사구 혹은 ‘체언구’로 부를 수 있을 것이며, 동사나 형용사가 이루는 구성은 ‘용언구’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³⁰⁾

이제 우리는 교착소와 관련하여 근원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에 입각하기로

28) “교착소”는 “첨가소(additive element)”란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9) 우리의 ‘교착소’는 전통적으로 ‘토’라고 불려 온 것이나 북한 문법에서 ‘토’라 불리는 것과 대체로 흡사하다. 그러나 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토’와는 가령 ‘하다’, ‘이다’와 같은 용언의 어간이 포함되는 일이 없는 점이 다른 것이며, 북한의 토와는 적어도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고, 우리의 지정 형용사(흔히 ‘계사’라고 하는 것을 말함) ‘이다’가 포함되지 않는 점이 다르다.

30) “체언”이나 “용언”이라는 범주 명칭이 활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여기서는 품사 분류의 상위 범주적인 성격만을 지닌다.

한다. (35)와 관련한 사실도 이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36) 국어의 조사 및 어미 기술을 위한 근원적인 가정

- 가. 국어에는 교착소(agglutinative element)가 있다.
- 나. 교착소에는 조사 및 선어말 형태와 어미(즉, 어말 어미)가 포함된다.
- 다.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 뒤에 참가되어 다시 통사적 구성을 형성한다.
- 마. 교착소는 일정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진다. 교착소는 선행 구성에 일정한 문법적 의미나 자매항(sister member) 관련 의미 및 양태적 의미를 덧붙인다.
- 바. 교착소는 크게 “체언구 교착소”와 “용언구 교착소”로 나뉜다. 체언구 교착소는 체언구 뒤에 붙는 교착소를 말하며, 용언구 교착소는 용언구 뒤에 붙는 교착소를 말한다.
- 사. 조사는 체언구 교착소이며, 선어말 형태와 어말 어미는 용언구 교착소이다.

(36) 중 핵심적인 사항은 (36다)이다. 국어의 교착소는 통사적인 구성 뒤에 참가되어 다시 통사적인 구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첫째, 교착소와 교착소가 겹치는 현상이 국어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어로서는 가장 평범한 사실이지만, 교착소가 통사적인 요소란 사실을 말해 주는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37) 가. 철수가 밥을 먹었겠다.

나. 영희가 마음씨가 착하였다.

(38) 가. [[[철수가 밥을 먹-]VP -었-]TP -겠-]MP -다]FP

나. [[[영희가 마음씨가 착하-]AP -였-]TP -다]FP

(37)은 용언구의 예이다. (37가)는 동사 구성의 예를 보인 것이며, (37나)는 형용사 구성의 예를 보인 것이다. (37가)에서 교착소는 ‘가, 를, -었-, -겠-, -다’와 같은 요소이며, (37나)에서는 ‘가, 가, -였-, -다’가 교착소이다. 우선, 문미 형태와 선문미 형태에만 주목하기로 한다. 여기서부터는 종래의 용어가 문제되는 경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말 어미를 “문미 교착소(文尾 謂着素)”

라 하고,³¹⁾ 선어말 어미라³²⁾ 불리던 것을 “선문미 교착소(先文尾 膠着素)”라 부르기로 한다.³³⁾

(37가, 나)의 교착소가 통사적 구성에 연결된다는 것은 (37가)의 ‘-었-, -겠-, -다’나 (37나)의 ‘-였-, -다’ 등이 (38가, 나)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38가)에서 ‘-었-’은 시제 교착소로서, 동사구(VP)에 연결되어 시제구 (TP=Tense Phrase)를 형성함을 보인 것이다. 시제구 또한 통사적인 구성이므로, 그 뒤에 ‘-겠-’과 같은 양태 교착소가 연결될 수 있다.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에 연결되어 다시 통사적 구성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는 국어의 교착소가 형태론적인 요소가 아니라 통사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통사적인 요소가 형태론적인 구성을 이룬다는 논의는 원리적으로 봉쇄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39) 통사적 요소의 원리적인 성격

통사적 요소는 원리적으로 통사적 구성에 쓰여 다시 통사적 구성을 이룬다.

(38가)에서 ‘-겠-’은 통사적 구성인 TP에 연결되어 다시 MP(=Modal Phrase)라는 통사적 구성을 형성한다. 이번에는 양태소구에 종단 교착소(Final Agglutinative 또는 Final Additive) ‘-다’가 연결되어 FP를 형성하게 된다.³⁴⁾ FP 또한 통사적 구성이다. (39)에 의한다. (39) 및 (36다)에 의하여 국어의 선문 미 형태나 문미 형태가 계속해서 덧붙는 현상이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국어의 문미 형식에는 ‘(좋)으시었겠사옵나이다’와 같이 7이나 8개나 되는 형태가

31) 이를 “문말 교착소(文末 膠着素)”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2) 앞 절에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선어말 형태”라는 이름을 써 왔다. 그것이 “어미”인지 어떤지 정확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33) 이를 “선문말 교착소(先文末 膠着素)”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34)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는 종단 교착소구(FP)가 CP(=Conclusive Phrase)로 상정되었다. 그것으로 어미 연결이 마무리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거기에는 어말 어미 구를 보문소구, 즉 CP(=COMP Phrase)라고 하는 관행과 지나치게 동떨어지게 하려는 의도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Conclusive라는 것이 종결 어미를 가리키는 술어로 쓰인 것으로, 어말 어미를 그 지시 대상으로 하는 데는 다소 결함을 가지는 것이다. FP는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연결되며, (26)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어미 형식이 되풀이되는 현상도 있으므로, 교착소와 교착소의 겹침은 국어 교착소의 원리적인 성격과 그 맥이 달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교착소가 통사적인 구성에 연결되어 다시 통사적인 구성을 이룸을 의미한다. 형태론적인 구성에는 이러한 정도의 겹침이 있을 수 없다. ‘어근+접미사+접미사+접미사’ 정도가 제법 많은 수의 접미사가 연결되는 대표적인 형식이다(예, formalization). 형태론적인 구성에 7, 8개의 접미사가 다소 자유롭게 혹은 다소 비제약적으로 연결되는 일은 예상될 수 없는 일이다.³⁵⁾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0) 교착소와 통사적 구성

교착소가 어렷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통사적인 요소임을 밝혀 준다.

일단 (40)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이루는 구성 또한 통사적 구성을 이룬다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39)의 원리가 작용한다. 체언구 교착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1) 가. 그 사람에게서부터의 편지

나. 서울에서부터처럼만큼만이나 해라.

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라. 그가 너에게만 이 소식을 전했다.

(41가)의 밑줄 친 부분은 적어도 3개, 많으면 4, 5개의 교착소가 겹친 것이며, (41나)의 밑줄 친 부분은 적어도 6개, 많으면 7개의 교착소가 겹친 것이다. 교착소가 통사적인 존재이며, 그것이 다시 통사적인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지 않는 한, 이러한 구성의 성립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41다)는 보조사 뒤에 격조사가 온 예이며, (41라)는 격조사 뒤에 보조사가 온 예이다. 이

35) 여기서 “다소 비제약적”으로나 “다소 자유롭게”와 같은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착소와 교착소의 연결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교착소가 연결되면 뛰수록 뒤에 교착될 수 있는 형태는 제약된다. 그러나 이 제약이 형태론적인 제약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종래는 거의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 의미는 확실해진다. 교착소로서 보조사와 격조사에는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어휘 고도 제약과 관련하여 특히 용언구 교착소는 어휘적인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일단 ‘어휘 고도 제약(lexical Island Constraint)’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 (42) 어휘 고도 제약(Lexical Island Constraint). 가토[Kato](1985) 참조.
어휘는 고도이다.

(42)가 의미하는 것은 일단 어떤 요소가 단어 형성 요소로 어휘 속에 포함되면 그 어휘 바깥에 있는 다른 성분과 통사적인 관련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43) 가. *철수는 [결코] 우리 일에 대하여 [비협조적]이다



- 나. *철수가 [어제] 오[겠]다.



- 다. *철수가 [내일] 왔다.



(43가)에서 [비협조적]은 어휘적 단위이다. 어휘적 단일성과 응결성(integrity)을 가진다. 접두사 ‘비-’는 (43가)에서 부정 극어 ‘결코’와 연관 해석되지 못한다. ‘비-’가 어휘 고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3나, 다)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43나)에서 [어제]는 ‘-겠-’과 관련되고, (43다)에서 [내일]은 ‘왔-’의 ‘-았-’과 관련된다. (43나, 다)가 비문이 되는 이유이다. 만약, ‘오겠다’나 ‘왔다’가 어휘적인 고도를 이루는 것이라면, (43나)나 (43다)가 이상을 가지는 이유가 결

코 쉽게는 해명되지 않는다. 교착소가 동사와 함께 이루는 구성은 결코 형태론적인 구성이 아니며, 오히려 통사적인 구성임을 말해 준다.

조사 구성에 있어서는 가령 ‘나에게만 주었다’라고 할 경우, ‘에게’가 뒤에 ‘만’을 가지고도 여전히 여격의 기능을 발휘하는 측면이 이 현상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리 자체는 분명하다. ‘나에게만’이 어휘적인 단일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통사적인 구성에서 그 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셋째, 교착소가 통사적 존재이며 통사적 구성에 연결된다는 것은 접속 구성에서 후행 성분의 교착소가 선행 성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받을 수 있다. 체언구 접속에 대해서는 임홍빈(1987)의 지적이 있으며, 용언구 접속에 대해서는 윤정미(1990)에서 관련 현상이 주목된 바 있다. 용언구 접속은 ‘계시-’의 문제와 관련하여 박진호(1994)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임홍빈·장소원(1995)에서 이 두 현상은 통사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보조사 구성과 관련해서는 강명윤(1995)의 지적이 있다. 접검 이론과 관련하여 용언구 접속 현상은 다시 윤정미(1996)에서 주목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한다.

- (44) 가.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 -었-] · 다]
- 나.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진-]] -다]
- 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 -면, 가을은 이미 깊은 것이다.
- 라.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 -근수록]. 정원은 올시년스러워진다.

(44가)에서 ‘바람이 분’ 사건과 ‘낙엽이 떨어진’ 두 사건은 모두 과거 시제로 해석될 수 있다. ‘바람이 분’ 사건이 현재이고 ‘낙엽이 떨어진’ 사건이 과거인 해석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간 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자의 해석의 경우, 후행 절에 연결된 시제 교착소 ‘-었-’을 후행절과 관련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올바른 해석을 얻을 수 없다. (44가)에 팔호 표시로 보인 바와 같이 ‘-았-’이 선후 행절 모두에 걸릴 수 있는 위치에 상정되어야 한다. 문미 교착소 ‘-다’의 효력도 선행절에 미친다. 따라서, 선행절 ‘바람이 불고’는 서술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의 영향이다. (44가)에서 문미 교착소 ‘-다’는 과거 사건에 대

한 서술의 종결을 나타내는 형태이다. 시제소구가 ‘-다’의 관할 밑에 있어야 한다. 이는 교착소가 통사적 구성에 연결되는 통사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계층적 구조를 이루면서 연결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5) 교착소와 계층 구조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에 연결되어 다시 통사적 구성을 이를 뿐만 아니라 선행 교착소와 후행 교착소는 계층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44나)는 선행절의 시제가 과거이고 후행절의 시제가 현재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공유하는 것은 ‘-다’뿐이다. 이는 ‘온다’의 ‘-ㄴ다’를 하나의 형태로 분석할 수 없음을 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44다)에서는 ‘-(으)면’이 후행절에만 걸릴 수는 없다. (44라)에서도 ‘-을수록’이 후행절 관련 해석만을 가질 수는 없다. (44)에 팔호 표시한 바와 같은 구조의 상정이 불가피하다. 체언구 교착소 구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이 요구된다.

(46) 가. [[고요한 명상]이]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한다.

나. *[[[고요한] [명상이]]]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한다.

다. *[[[고요한 명상과] [사색이]]]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한다.

(46가)에서 팔호 표시한 부분은 ‘고요한’이 ‘명상’을 수식하는 것임을 보인 것이다. 이와 달리 ‘고요한’이 ‘명상이’를 수식한다면 그 구조는 (46나)와 같은 것이다. (46나)는 실제로 우리의 학교 문법이 상정하는 구조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혹 ‘명상이’이나 ‘명상’이 통사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³⁶⁾ ‘고요한’에 의한 수식이 가능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같은 분석법에 의하면 (46다)에서 ‘고요한’이 수식하는 것은 ‘명상과’라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교착소 ‘이’는 ‘사색’에만 걸리게 된다. (46다)에서 주어는 ‘사색이’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직관에 어긋난다. ‘고요한 명상과’가 해석을 받을 수

36) 우리에게 있어 이는 격조사구(KP)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장소원(1995)를 참고하기 바란다.

없다. 이 관련 현상을 기능 여과 현상으로 불러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³⁷⁾

(47) 기능 여과

어면 요소나 성분이 기능상 아무런 해석도 받을 수 없을 때, 그 구조나 구성은 비문법적인 것으로 배제된다.

우리의 직관에 의하면 (46다)의 주어는 '고요한 명상'이라는 것과 '(고요한) 사색'이라는 것 둘이다.³⁸⁾ 직관과 구조에 이러한 괴리가 생긴 것은 (46나)와 같이 교착소 '이'를 선행 명사와만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46가)와 같은 구조의 상정이 필연적이다. 다음 예를 더 보기로 하자.

(48) 가. 시인이 [[영희와 철수]에게]만] 엽서를 띠웠다.

나. [[영희와 철수]만]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다. *[영희와] [[철수]에게]

라. *[영희와] [철수만]을] 사랑한다.

(48가)에서 교착소 '에게'는 '철수'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희와 철수' 전체에 걸린다. (48다)는 그러한 구조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임을 보인 것이다. (48)의 기능 여과에 의하여 배제된다. (48가)의 '만'도 '영희와 철수에게' 전체에 걸린다. '만'이 '철수에게'에만 걸릴 수는 없다. '만' 역시 교착소이기 때문이다. '만'이 '철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철수에게'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44)에 따라 교착소와 교착소는 층위를 이루며 연결된다. 혹 '영희와 철수만에게'와 같은 구성도 주변적으로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교착소와 교착소가 층위를 이루어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에게'나 '에게만'이 설령 같은 해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방향'['에게'의 의미 기능을 말함]에 대한 '제한성'['만'의 의미 기능을 말함] 해석이 '제한성'에 대한 '방향' 해석과 같거나

37)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도 이러한 여과를 설정한 일이 있다. 촘스키의 완전 해석의 원리와도 흡사하다.

38) (48다)에서 '고요한'은 구조적 중의성을 가진다. 괄호 표시는 그 해석의 하나를 보인 것이다.

혹은 유사한 결과를 빚게 되는 데서 유래하는 현상일 뿐이다.

(48나)는 ‘만’이 격조사 앞에 오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격조사와 보조사의 위치가 (48가, 나)와 같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 동안의 난제의 하나였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격조사나 보조사가 완전히 동일한 부류는 아니더라도, 체언구 교착소로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8나)에 대해서는 제한성을 가진 두 대상이 주어가 된다는 해석을 해야 한다. 교착소와 교착소가 통사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계층적인 구조를 이름을 말해 준다. 국어의 교착소로서 (48라)에 보인 바와 같이 접속 구성을 뒤에 붙은 교착소가 둘 중 하나에만 걸리고 나머지에는 걸리지 않는 구조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넷째, 위에서 우리는 (28)-(31)와 같은 예를 중심으로, 선어말 형태에 관한 ‘출현 위치의 비절대적 고정성’이라는 현상을 부각시켰다. 여기서는 국어의 교착소가 통사적 구성에 연결된다는 점을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28)-(30)에서 몇 가지 예를 다음과 같이 가져오기로 한다.

(28) 가.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오니, 황공하더라.

나.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오시니, 황공하더라.

(29) 가. 어제 나는 정말 피곤해 죽겠었다.

(30) 가. 어제는 그가 죽었겠다.

(28가)의 밑줄 친 부분은 ‘-시+삽-’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28나)의 밑줄 친 부분은 ‘-삽+시-’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둘이 모두 문법적인 구성이라는 것은 다시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29가)에서는 ‘-겠+었-’의 순서로 되어 있던 것이 (29나)에서는 ‘-었+겠-’의 순서로 나타난다. (29가)의 ‘-겠+었-’과 ‘-었+겠-’은 그 뜻하는 바가 다른 것이다. ‘-겠+었-’은 어떤 상태가 과거의 것이었음을 뜻하며, ‘-었+겠-’은 과거에 대한 추측을 뜻한다. 어떤 상태가 과거의 것이었음을 뜻하는 경우 ‘-겠+었-’의 연결만을 쓸 수 있다. ‘-겠+었-’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의 직관도 이와 다르지 않다. (32)에서는 이를 ‘출현 위치의 비절대성 고정성’으로 보았다. 거기서 주목한 것은 이것이

전형적인 굴절의 형태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이를 다음 예와 비교하기로 한다.

- (49) 가. 새삼스러이
 나. [[새삼+스럽]+이]
 다. *[[새삼+이]+스럽-]

(49)는 파생의 예를 보인 것이다. (49가)는 (49나)와 같은 구조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구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49다)와 같이 그 순서가 바뀔 수 없다. (49)의 예는 형태론적인 구성이다. 형태론적인 구성에서는 접미사들이 그 위치는 바꾸는 일이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28)-(30)의 몇 예는 그렇지 않다. 이는 국어의 교착소들이 통사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교착소들이 통사적 구성에 연결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겠+었-'과 '-었+겠-'의 의미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 교착소들이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어 결합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시+오-'와 '-오+시-'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지적될 수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삽+시-'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는 표현에 더 적합한 것이다. “어서 읍쇼.”와 같은 표현은 하층민의 사회 방언과 같은 뉘앙스를 띤다.³⁹⁾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하자.

(50) 교착소 출현의 비절대적 고정성의 의미

국어에서 교착소의 출현 위치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교착소가 통사적 구성에 연결됨을 말해 주는 동시에, 교착소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의미 기능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교착소가 통사적 구성에 계층적으로 연결됨을 말해 준다.

다섯째, 국어에는 문미 외적인 문미 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39) 이에 작용하는 다른 요인은 ‘읍쇼’의 ‘-ㅂ-’이 통사적인 연결의 필수적인 위치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85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 (51) 가. 어와 벗님네야 산수 구경 가자스라. (가자+스라)
 나. 빨리 좀 가장구나. (가자+(ㅅ)+구나)
 다. 내가 오늘 그런 일을 당했단다. (당했다+ㄴ다)
 라. 네가 나를 배신하다니! (배신하다+니)

(51가)의 밑줄 친 부분은 청유형 어미 ‘-자’ 뒤에 다시 ‘-스라’가 쓰임을 보인다.⁴⁰⁾ (51나)에는 다시 청유형 어미 ‘-자’ 뒤에 ‘-구나’란 감탄형 어미가 쓰인 것을 보인 것이다. ‘잣’의 ‘ㅅ’은 사이시옷인 것으로 여겨진다.⁴¹⁾ (51다)의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 ‘-다’ 뒤에 다시 ‘-ㄴ다’가 연결된 것이다. 이것을 기원적으로 ‘-다’ 뒤에 ‘한다’가 있는 형식이며, 그러한 형식에서 ‘하-’가 탈락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⁴²⁾ 혹 통사적으로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시적으로는 그것을 간접 인용 구성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51라)의 경우는 ‘네가 나를 배신하다’라는 문장이 구체적인 발화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절대문적인 구성이다. 따라서 (51라)에 대하여 인용적인 구조를 상정하는 것은 혹 기원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시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51)과 같은 현상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하다.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기로 하자. (51)에서 문미 외적인 문미 ‘-스라’, ‘-구나’, ‘-ㄴ다’, ‘-니’ 등은 ‘-자’, ‘-다’와 같이 문장이 완전히 종결된 형식 뒤에 쓰인 것이다. 그런데 문장은 하나의 통사적 단위이다. 만약 (51)에서 문미 외적인 문미 ‘-스라’, ‘-구나’, ‘-ㄴ다’, ‘-니’ 등이 통사적 구성 뒤에 쓰이는 존재가 아니라면, (51)과 같은 문장이라는 단위 뒤에 다시 쓰일 수는 없을 것이다. (51)과 같은 예는 문미 외적인 문미, 나아가 국어의 교착소 일반이 통사적인 존재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문종결 교착소와 문미 외적인 문미가 그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교착소와 교착소가 평면적이거나 선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게 됨을 말해 준다.

여섯째, 위의 논의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이나,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40) ‘-스라’는 ‘-스라’의 후대형으로 여겨진다. ‘-스-’도 ‘-라’도 각기 독립된 교착소였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둘이 하나의 형태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41)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81)을 참조하기 바란다.

42) 이필영(1993)이 그러한 입장의 하나이다.

- (52) 가. 이번 일은 모두 보고하여야 된다.
 나. 이번 일은 모두 보고하여야지 된다.
 다. 이번 일은 모두 보고하여야지만 된다.
 라. 이번 일은 모두 보고하여야지만이 된다.
- (53) 가. 이런 때는 네가 이걸 잡아야지.
 나. 이런 때는 네가 이걸 잡아야 하지.
 다. *이번 일은 모두 보고 하여야 하지 된다.

(52가)는 '-어야 되-' 구성을 보인 것이다. 이 구성에서 '-어야'는 분명 일단 필요한 모든 요소를 구비한 형식이다. 다른 요소를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52나)에서와 같이 '-어야' 뒤에는 다시 '-지'가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가 (53가)의 밑줄 친 부분의 '-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53가)는 (53나)의 '하-'가 생략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의미 기능이 '하-'를 가진 형식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러나 (52나)는 (53다)처럼 바꾸어 볼 수 없다. '하-'가 생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⁴³⁾ (52가)에서 '보고하여야'를 일단 완결된 통사적 구성이라고 할 때 '-지'는 통사적인 구성 뒤에 다시 연결된 것이 된다. '-지' 뒤에는 다시 (52다)와 같이 '만'이 연결될 수 있고, '만' 뒤에는 다시 (52라)와 같이 '이'가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52라)의 '만'과 '이'를 비용언구 교착소라고 하여 보자.⁴⁴⁾ '-어야, -지'는 용언구 교착소이다. 이 때 주목되는 것은 비용언구 교착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언구 교착소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완결적 용언구 교착소가 나타나야 비용언구 교착소가 쓰일 수 있다. 완결적 용언구 교착소 앞에 비용언구 교착소가 쓰이는 것은, 이 위치 조건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이다. 비용언구 교착소가 쓰이기 위해서는 용언구가 그 교착소와 함께 일정한 구성을 이루어 완결되어야 한다. 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준다. 첫째, (52라)의 밑줄 친 '-여야지만이'와 같은 교착소의 연결은 적어도 두 가지 확연히 구별되는 층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용언구 교착소와 비용언구 교착소가 같은 평면에서 연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용언구 교착소와 비용언구 교착소는 층위를 달리하여 연결

43) 유추형일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여기서의 관심은 그 기원이 어디 있는가에 있지 않다.

44) 체언구 교착소라고 하면, 부사구나 부사형 뒤에 나타나는 조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도 그 성격이 같다.

- (54) 가. 김 선생, 오늘은 신수가 훈하십니다그려.
- 나. 김 선생, 오늘은 신수가 훈하십니다요.
- 다. 김 선생, 오늘은그려 신수가그려 훈하네그려.
- 라. 김 선생, 오늘은요 신수가요 훈하시네요.
- 마. 영희야, 철수기야 오늘은야 신수가야 훈하다야.

(54가, 나)는 '그려, 요'가 문종결 형식 뒤에 쓰인 것이며, (54다, 라, 마)는 '그려, 요, 야'가 여러 성분 뒤에 다 쓰인 것이다. 이를 '그려, 요, 야'와 그 앞에 오는 교착소는 형태론적 층위에서 같은 평면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일단 어떤 형태들이 모여 이룬 구성이 완결된 뒤에 쓰인 것이다. 이는 '그려, 요, 야' 등이 형태론적인 요소가 아님을 의미한다. 적어도 이들은 문제의 구성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형태론적인 요소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일은 없다. 따라서 이들은 통사적인 요소이다. 통사적인 요소는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한다. 따라서 그 앞에 오는 구성도 통사적인 구성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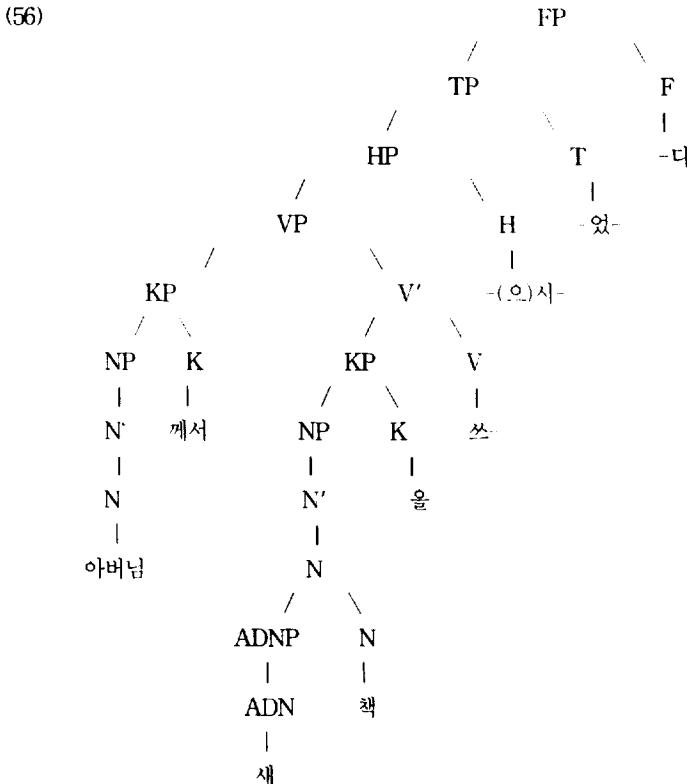
(55) 국어 교착소의 성격

- 가. 국어의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에 연결되는 통사적 존재이다.
- 나. 국어의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에 연결되어 다시 통사적 구성을 이룬다.
- 다. 교착소와 선행 형태 및 다른 교착소와의 연결은 계층적 구조를 이룬다.

5. 교착소의 통사론과 관련 문제

우리가 상정하는 용언구 교착소의 구조는 아래의 (56)과 같다. 용언구 교착소는 용언 바로 뒤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자격을 가지는 용언구 뒤에 연결된다. 최근의 논의들이 상정하는 구조와 다른 것은 아니나, 기본 전제와 설

명법 및 교착소를 상정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다. 선문미 교착소와 문미 교착소는 각기 선행 성분과 함께 구(句)를 이룬다. ‘아버님께서 새 책을 쓰시었다’의 통사 구조를 나무그림으로 그려 보기로 한다.⁴⁵⁾



(56)에서 F는 문미 교착소 '-다'를 가리킨다. FP는 '-나'가 이루는 문미 교착

45) 이러한 구조의 대체적인 윤곽은 이미 임홍빈·장소원(1995)에서 제시한 바 있다. 본 논의는 그러한 논의를 좀더 본격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거기서 분명히 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함과 아울러 이 문제의 주변에 얹혀 있는 오해를 푸는 데 목적이 있다.

소구이다. T는 시제 교착소('시제소'로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이며, TP는 시제 교착소구('시제소구'로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이다. H는 존경 교착소이며, HP는 존경 교착소구이다. KP는 격조사구를 말하며, ADNP는 관형사구를 말한다.⁴⁶⁾ 격조사구는 명사구와 격조사로 분석된다.

엑스-바 도식에 의하면 구범주는 바-하나 범주와 지정어(SPEC)로 분지된다. (56)에서 우리는 용언 교착소에 대해서 지정어 위치를 상정하지 않았다. 문미 교착소나 시제 교착소 혹은 존경 교착소와 같은 것에 지정어라는 위치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정어 위치라는 것이 빌미가 되어 온갖 추상적인 이동이 문법을 허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지정어 위치가 있어야 의문사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한다. 의문사 이동이 지정어 위치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순환론이기 때문이다.⁴⁷⁾ 우선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57) 교착소와 지정어

국어의 교착소는 지정어 위치를 가지지 않는다. 순환론에 의하지 않는 한, 교착소의 지정어의 위치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FP 바로 밑에 F가 오는 것은 엑스-바 도식에 예외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엑스-바 도식이 모든 범주에 완전히 부합될 수 있는 기술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고, 엑스-바 도식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55)에 보인 바와 같이, 국어의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에 연결되는 통사적 요소이므로, 우리에게 있어 교착소는 구범주를 보어로 선택하는 헤드(Head) 또는 표제가 된다.

(58) 교착소의 보어

국어의 교착소는 구범주를 보어로 선택한다.

46) '새'와 같은 관형사는 명사에 대한 영충위 수식어로 상정되었다.

47) 국어의 경우 논리 형식부(LF)에서 의문사-구가 이동한다는 논의는 추상적인 설명의 극치라고 할수 있다. 임홍빈(1988나)에서는 의문문 해석의 논리가 의미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56)에만 논의를 한정하는 한, 문미 교착소는 시제소구(TP)를 보어로 가지는 것이 되고, 시제 교착소는 존경소구(HP)를 보어로 선택하는 것이 되며, 존경 교착소는 동사구(VP)를 보어로 선택하는 것이 된다. ‘하다, 하시다, 하겠다, 하였다, 하오니, 하더라’ 등과 같은 구성을 고려하면 교착소의 보어의 부류는 훨씬 다양해진다. (58)은 체언 교착소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56)에 나타난 체언 교착소는 주격 조사라고 하는 ‘께서’와 목적격 조사라고 하는 ‘을’이다. 이들은 격 조사 범주인 K로서 일반적으로 명사구를 보어로 선택한다. 격조사구는 ‘만을’과 같이 보조사 ‘만’을 가진 보조사구를 보어로 선택하기도 하고, ‘에게의’와 같이 다른 격조사구를 보어로 선택하기도 한다. 교착소는 어느 경우에나 구범주를 보어로 선택한다.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에 연결되는 통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55)에 의한다.

(56)과 같은 구조와 접근은 그 동안, 국어의 구절 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와 미해결점 및 오해에 대하여 매우 선명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국어의 문미 교착소(종래의 어말 어미)를 보문자라고 하는 관행이 국어의 특질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수 있다. (56)에서는 문미 교착소는 F로 상정되었다. F는 종래의 논의에서는 보문자(COMP)의 자격을 가졌던 것이며,⁴⁸⁾ 그러한 해석법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다.⁴⁹⁾ 그런데, 국어의 전통 문법에서 활용이라고 하면 흔히 어말 어미의 활용을 가리켰던 것이다. 생성 문법의 관행에 따라 그것을 보문자(COMP)라고 하면, 국어에서는 보문자가 활용을 하는 것이 된다. 활용은 용언이 하는 것이라 입장에서 보면, 이는 아주 기괴한 문법이 아닐 수 없다. 영어의 문법에다 이를 비유한다면, 활용을 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보문자 that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 된다. 보문자가 활용을 한다는 것은 범주에 대한 인식의 자연성을 크게 해손시킨다.

이에 따르는 다른 문제는 국어에서 활용을 인정한다면, 활용을 하는 것은 용

48) 임홍빈(1984, 1987), 서정목(1984, 1993), 안명철(1992), 유통서(1993, 1995) 등을 말한다.

49) 한학성(1987)에서는 굽절소(INFL)로 설정하였다. 대체로 모든 문장이 보문자를 가진다는 인식은 브레스너[Bresnan](1974)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일반화된 것은 래드포드[Radford](1981)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언이며 그 어미 형식이 되는 것은 문미 교착소라고 해야 국어의 전형성에 근접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문미 교착소를 보문자로 하고, 그 아래에 오는 선문미 교착소를 굴절소(INFL)라고 한다면, 이 또한 국어의 전형성을 크게 해친다. 물론 이는 국어에 활용 범주를 설정할 때의 문제이다. 국어의 교착소는 엄연히 통사적 존재인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59) 문미 교착소와 보문자

문미 교착소를 보문자(COMP)로 상정하는 것은 국어의 특질이나 그에 대한 인식에서 보아 자연성이나 전형성을 크게 해친다.

반면, (56)에 의한 접근은 적어도 이러한 곤경에 처하지는 않게 된다. 국어의 활용은, 만약 활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56)에서는 용언에 문미 교착소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격지어질 수 있다. 국어에서 용언의 활용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고려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둘째, (56)에는 적어도 교착소구의 계층적 구조 속에 부정소(Neg)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 동안 윤정미(1990), 윤종렬(1990), 안희돈(1991) 등에서와 같이 국어 문장 구조에 때로 상정되어 온 부정소구(NegP)의 존재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아니, 못’ 등을 부정소라 하고,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 없다, 모르다’ 등을 부정 서술어라고 해 보자. 국어에 부정소구(NegP)라는 것은 왜 설정될 수 없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명하다. 그들은 절대로 교착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하다, 못하다’는 독립적인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아니하-다’의 경우 ‘-다’가 교착소이므로, ‘아니하다’를 교착소라고 하는 것은 교착소 속에 다시 교착소를 설정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다. 부정소구를 이루는 것은 ‘아니하다, 못하다’가 아니라 ‘아니’와 ‘못’뿐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니’와 ‘못’은 분명히 어휘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다’와 같은 교착소와 동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60가)는 윤정미(1990)에서의 예와 그 구조 분석을 보인 것이며, (60나)는 거기서 부정소구를 상정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 (60) 가. [VP 철수가 책을 사]-고 [VP영희가 공책을 사지] 아니 하였다.(윤정미 (1990:350) 참조)

나. NegP는 다른 최대 투사와 등위 접속될 수 있으므로 최대 투사이다. (60 가)에서 부정소는 둘째 절뿐만 아니라 첫째 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정소가 통사적 핵으로서 등위 접속된 전체 구를 성분-지휘함을 말한다.(윤정미(1990:351) 참조)

(60가)의 구조도 대체로 온당하고 (60나)의 해석도 대체로 온당하다. 근원적인 결합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60가)에서 ‘아니하였다’를 하나의 독립적인 동사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교착소의 비어휘 조건을 어기는 것이다. 어휘적인 요소는 결코 교착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61) 교착소의 비어휘적 제약

국어의 교착소는 독립적인 어휘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독립적인 어휘는 그 자체의 문법을 가지고 문장에 참여한다. 그것이 체언이나 용언이라면 그 자체가 교착소를 가진다. 교착소를 가지는 존재가 다시 또 교착소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62) 가. 아무도 영희를 안 만났다.

나. [[[아무도 영희를 만나-] Agr]_{AgrP} Neg]_{NegP} Tense]_{TP}

(62가)는 윤종렬(1990), 안희돈(1991)적인 예이다. (62나)는 Neg가 있는 위치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부정 국어 ‘아무도’가 주어의 위치에 쓰인 것은 Neg가 부정 국어 ‘아무도’를 성분-지휘(c-command)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⁵⁰⁾ 이에 대하여 한학성(1993:449)은 주어 위치에 부정 국어가 쓰일 수 있는

50) 부정 국어 성분(Negative Polarity Item)이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부정 국어”라 하는 것은 편의상의 명칭이다. 정확성이 요구될 때에 한하여 이 둘을 구별하여 쓰기

것은 “표층 구조에서 주어 위치가 Neg 요소에 의하여 성분 통어될 수 있음을 보여 줄 뿐이지 NegP가 존재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이에서 부정소구의 존재는 비판되었으나 부정소가 부정 극어를 성분-지휘해야 한다는 요건은 부정되지 않았다. 한학성(1993)은 부정의 작용역 문제를 ‘-지’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소박한 의미에서 국어에서 부정소와 부정 극어(혹은 부정 극성 성분)의⁵¹⁾ 문제는 어휘적인 요소와 어휘적인 요소와의 관계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63) 가.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른다.
 나. 상자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63가)에는 ‘아무도’라는 부정 극성 성분이 있고, (63나)에는 ‘아무 것도’라는 부정 극성 성분이 있다. (63가, 나)는 성립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 경우, 부정 극성 성분이 부정소에 의하여 성분-지휘되어야 하거나 ‘-지’에 의하여 성분-지휘되는 영역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63가, 나)는 그 어느 해석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아니’도 없고, ‘-지’도 없기 때문이다. ‘모르다’나 ‘없다’를 어휘 해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정 극성 성분과 ‘모르다, 없다’는 같은 문장에 들어 있다. 이것이 제약의 출발점이다. 부정 극성 성분과 부정 서술어가 동절 성분이거나, 가령 ‘아무도 간다고 보지 않았다’와 같은 예의 설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재구조화된 구조에서 동절 성분이면, 부정 극성 성분의 쓰임은 허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 (64) 부정 극성 성분과 부정 서술어
 부정 극성 성분은 부정 서술어와 동절 성분이거나, 재구조화된 구조에서 동절 성분이면, 그 쓰임이 인허된다.

따라서, 부정소구의 설정이나 ‘-지’에 의한 부정문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로 한다.

51) ‘아무 것도’와 같은 구성도 부정 극어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부정 극어”는 아니다.

부정문 해석에 부정소구와 같은 것을 상정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한 것은 어휘적 요소를 교착소로 잘못 파악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셋째, (56)에서 우리는 일치소(AGR)나 일치소구(AGRP)와 같은 것은 상정하지 않았다. 일치소로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으)시-'이다. 최현숙(1988:113)에서 제기된 것은 존경소 '-(으)시-'와 복수 표지 '들'이다. 국어에서 이들은 [+Agr]이 실현된 것으로 보았다. 한학성(1987, 1993), 윤종렬(1990)에서도 부정소 문제와 관련하여 AGR과 AGRP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동석(1993)에서도 AGRP가 상정되었으며, 서정목(1993)에서도 그러한 상정이 '-(으)시-'와 주체와의 관계를 포착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²⁾ 그러나 AGR이나 AGRP의 상정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이다. '-(으)시-'는 경험주를 높이는 교착소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혹 주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으)시-'가 전적으로 주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 (65) 가. *나에게는 저 멀리에 있는 아버님이 보이신다.
 나. 나에게는 저 멀리에 있는 아버님이 보인다.

(65가)는 박양규(1975)적인 예이다. 주어는 '아버님이'이며 주체는 '아버님'이다. '-(으)시-'는 주어를 높이는가? 문법적인 성분으로서의 주어가 높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주체를 높인다고 해야 한다.⁵³⁾ '-(으)시-'는 주체인 '아버님'을 높이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65가)에서 '-(으)시-'는 '나'를 높인다. '나'는 존대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격하다. '-(으)시-'의 온전한 쓰임을 보이는 것은 (65나)이다. '-(으)시-' 관련 대상이 정확하게 주어 관련 대상으로 특징지어지지 않는데,⁵⁴⁾ 어떻게 그것을 AGR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52) 서정목(1993)에 상정된 것은 H1과 H1P이다. H는 [+Honor]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 AGRP의 상정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53) 그렇다고 우리가 주체 높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54) 이러한 예들에 대해서는 임홍빈(1985나)를 참조하기 바란다.

- (66) 가. 아버님이 손이 크시다.
 나. 철수가 손이 크다.

(66가)의 ‘-(으)시-’는 주어인 ‘손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으)시-’를 주어 존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 형태소 연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편협한 입장이다. ‘주체 존대설’보다 그 포괄하는 범위가 제한된다.

AGR을 지지하는 논의의 하나는 주격 배당과 관련하여 ‘-(으)시-’를 AGR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님이 손이 크시다’에서 ‘-(으)시-’ 관련 대상은 ‘손’이 아니라 ‘아버님’이다. ‘-(으)시-’가 주격을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손’이나 ‘아버님’ 어느 하나에만 주격을 배당해야 한다. 이 둘에 모두 주격을 배당한다면, 격 배당의 기본 원리를 어기게 된다. 격 배당의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원리는 격 배당자와 격 피배당자와의 관계는 1:1이라는 것일 것이다. 주격을 무표격(default case)으로 보아 격을 배당받지 못하는 모든 체언에 주격을 배당한다고 하기도 한다(강영세(1986), 김영주(1990) 참조). 이는 눈을 감고 통사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법은 모든 성분에 격이 완벽하게 배당된 뒤에나, 그것도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논의일 뿐이다. 어느 경우에나 이러한 시도는 무모하다.

(66나)의 문제도 심상치 않다. (66나)에는 ‘-(으)시-’가 없다. 그런데도 (66나)에는 주격이 둘이나 있다. 무엇이 주격을 배당하는가? ‘-(으)시-’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66나)에서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추상적인 어떤 것을 가정해야 한다. 영형태의 ‘-(으)시-’가 있다고 가정하든가 AGR이라는 위치를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형태의 ‘-(으)시-’는 가정할 수 없다. 영형태는 형태는 없지만 기능은 있는 것이다. (66나)에 존경이나 존대의 흔적은 없다. 따라서 영형태의 ‘-(으)시-’를 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치만 있고 내용은 완전히 영(零)인 어떤 요소를 가정해야 한다. 형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위치를 상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해당 관련 원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순수히 위치라는 것이 주격을 배당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를 문미 교착소에 비유해 보기로 하자. (66나)를 예로 들어 보자.

(67) [[철수가 순이 크-]V_P ~ [Ø]_F]_{FP}

(67)은 (66가)에서 문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고 그 요소를 [Ø]_F가 같이 상정해 본 것이다. 그러한 위치의 상정은 가상의 영역에서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67)은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문미 형태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이 아닌 실제에 있어 교착소가 없는데 그 위치만을 상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물을 수 있다. 옳지 않다. 교착소가 없으면 그 위치도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교착소가 없이도 그 위치는 상정될 수 있다는 가정은 온갖 추상적인 논의를 불러들인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국어 교착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은 제약으로 진술해 보기로 한다.

(68) 교착소의 결여와 유추 해석 금지 제약

국어의 교착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자리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하여 유추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68)을 (67)에 적용하면, (67)의 F 위치에 '-다'와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하여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것은 국어의 직관과 일치한다. 문미 위치에는 '-다' 외에도 '-지', '-오', '-네', '-아/어', '-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 '-다'가 있다고 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제 동일한 원리가 (66나)에 적용될 수 있다. (66나)에는 '-(으)시-'가 있는가? 없다. '-(으)시-'가 없어도 그 위치의 상정은 가능한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럴 수 없다. 원리적으로 교착소가 없으면 그 위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기능 의미적 존재로서의 교착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하자.

(69) 교착소의 기능 의미적 성격

국어의 교착소는 그 자체가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 자족적인 존재이다.

AGR의 존재를 거부하는 다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32)에 보인 바와 같은 ‘출현 위치의 비절대적 고정성’이다. (32)는 선문미 교착소의 경우만을 보인 것이나, 이를 국어의 교착소가 가지는 일반적인 성격이라 할 때,⁵⁵⁾ 교착소가 없는 위치에 그 요소를 상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넷째, 우리는 (56)에 대하여 동사-인상(Verb-Raising)이나 명사-인상과 같은 절차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촘스키(1986, 1988)적인 접근이 국어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변형을 국어에 상정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56)을, 간략한 예로 바꾸기로 한다.

(70) 가. 철수가 새 책을 썼다.

- 나. [[[철수가 새 책을 쓰-]VP -었]TP-다]FP
- 다. [[[철수가 새 책을 t₁-]VP -[쓰+었]]TP-다]FP
- 라. [[[철수가 새 책을 t₁-]VP -t₂]TP-[쓰+었]+다]FP
- 마. [새 t_i] [책;+을]

(70나)는 용언구 교착소 구성을 중심으로 (70가)의 구조를 보인 것이다. 동사-인상을 적용하면 제1차적으로 ‘쓰-’가 VP 속에서 나와 TP의 T인 ‘-었-’과 융합하게 된다. (70다)는 동사-인상 뒤의 구조를 보인 것이다. VP 속에 동사가 있던 자리에는 혼적 t₁가 남게 된다. 이번에는 (70다)의 [쓰+었]이 TP 속에서 나와 FP의 F와 융합되게 된다. (70라)는 그 결과를 보인 것이다. (70마)는 명사구에서 책-명사가 인상되어 조사와 융합된 구조를 보인 것이다.(유동석(1993, 1995) 참조) 동사-인상은 왜 행해지는가? 촘스키(1981, 1991) 등에서 제시된 것은 형태론적인 동기이다. 국어의 경우는 동사의 어간이나 교착소(즉 어미)들이

55) 이는 보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가령, ‘만’이 없는 자리에 ‘만’을 가정하여 의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에 속한다. 그런데, 격조사의 경우는 어떤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철수 책’과 같은 경우, 속격 조사가 생략된 것인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원리에 충실한 한,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명사가 관형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는 다른 원리에 의거해야 한다. 어떤 물건을 ‘철수’에게 주었을 때, 이를 ‘철수 주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똑같이 보아야 하는가? (75)에 충실한 한, 이러한 해석법은 피할 수 없다. (75)에 의하는 한, 국어에는 격조사 생략과 같은 현상은 없게 된다. 다만 있는 것은 격조사 생략적인 현상만이 있을 뿐이다.

의존 형식이라는 것이 강조된다(유동석(1993, 1995) 참조). 그러나 국어의 경우 (70다, 라, 마)와 같은 인상 변형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극명한 것이다. 우리는 (36) 및 (39), (55)와 (58)을 통하여 국어 교착소는 그 성격이 통사적임을 강조하여 왔다. (55)와 (58)을 여기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55) 국어 교착소의 성격

- 가. 국어의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에 연결되는 통사적 존재이다.
- 나. 국어의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에 연결되어 다시 통사적 구성을 이룬다.
- 다. 교착소와 선행 형태 및 다른 교착소와의 연결은 계층적 구조를 이룬다.

(58) 교착소의 보어

국어의 교착소는 구범주를 보어로 선택한다.

동사-인상의 동기가 형태론적인 데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문제의 교착소가 형태론적인 요소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어의 교착소는 형태론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55가)가 말해 주고 있는 바이다. (58)에 의하면 국어의 교착소는 구범주를 보어로 선택하는 요소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존경 교착소 '-(으)시-'(이는 (56)에서 H로 표시한 것이다)의 하위 범주화 틀을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보기로 한다.

(71) -(으)시- : <H, +[VP/AP/HumP —]>

(71)은 '-(으)시-'가 존경소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그 앞에는 동사구나 형용사구 또는 겸양 교착소구가 올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56)에서 그 조건을 보기로 하자. (56)에서는 '-(으)시-' 앞에 VP가 오고 있다. (71)의 조건이 충족된다. 그 외에 달리 충족시켜야 할 다른 조건이 없다. 동사를 인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 (70마)의 체언구 교착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명사-인상이나 명사-융합을 상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국어의 교착소는 구범주를 보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56)에서 우리는 용언의 활용형이란 것을 어휘부에서 완성하여 도입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교착소가 구범주에 첨가되는 양상은 그 성격의 가장 원리적인 측면에서 통사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교착소의 모든 결합을 어휘부에서 마련하고, 통사론은 단지 그 형식 중 하나를 가져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현대의 주요 언어 이론들이 취하는 방식이기는 하다.

LFG에서 동사의 굴절형은 대체로 모두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 물론 모든 논의가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신수송·류수린(1995:426)에서는 국어 동사의 활용형 전체를 어휘부에 두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었다'는 접사(Af)로 문장 구조에 도입된다. HPSG에서도 활용형은 전체로 주어지며,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령 '-었다, -었니'와 같은 부분은 VFORM으로 상정된다.(장석진(1993: 117) 참조) 이기용(1997)에서 사전은 기본 사전과 확장 사전으로 구성된다. 확장 사전은 이형태 생성 규칙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활용형 사전이라 할 수 있다. 활용형이 모두 만들어져 도입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최소주의 이론에서도 동사는 완전히 활용형으로 도입된다. 어휘 요소는 가령 동사의 경우, 어근과 굴절 자질로 이루어진 형태론적 복합체가 다시 굴절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구조를 국어의 '오시었다'에 적용해 본 것이 양동휘(1994)이다. 어휘부에서 이 항목은 '[[[[오]시]었]다]'와 같은 부가 구조(adjunction structure)를 이룬 것으로 상정된다.⁵⁶⁾ 이것이 [+HON], [+PAST], [+DEC]와 같은 굴절 자질을 취하여 형태론적 복합체를 이루고, 이 복합체가 다시 [+HON], [+PAST], [+DEC]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동사 연속이 된다. 이 자질들은 동사 인상 과정을 통하여 차례차례 점검된다. 동일한 자질이 세 번씩이나 되풀이되는 것과 같은 절차는 불가사의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점검 이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중시하려는 것은 국어 교착소의 기능상의 특성이다. 국어의 교착소는 그 자체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쓰임이 다른 요소에 의하여 점검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69)를 다시 보기로 한다.

56) 촘스키(1993:28)에서는 형태론적 복합체가 [R-Infl₁-……-Infl_n]과 같이 되어 있으므로, '-시었다'와 같은 것이 계층적 구조를 이룬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어휘부의 어휘 항목이 단어 형성 차원이 아닌데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문제의 구성이 형태론적 구성이 아님을 뜻한다.

(69) 교착소의 기능 의미적 특성

국어의 교착소는 그 자체가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 자족적인 존재이다.

이는 가령 어떤 문장에 ‘-(으)시-’가 쓰였다면, ‘-(으)시-’의 쓰임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체밖에 없음을 뜻한다.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절대로 굴절어에 나타나는 어미와 같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⁵⁷⁾

6. 재구조화와 굴절 범주의 설정 문제

(56)의 예를 구조에 대한 팔호 표시법으로 바꾸어 (72가)와 같이 여기에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72나, 다)는 (72가)에 국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이 불가능한 ‘어순 재배치(scrambling)’를 적용해 본 것이다.

- (72) 가. [[[아버님께서]KP [[새 책을]KP [쓰-]]V-]VP- 시]HP-었]TP-다]FP
 나. “[[[e_i [[새 [아버지께서]KP 책을]KP [쓰-]]V-]VP- 시]HP-었]TP-다]FP
 다. “[아버지 [새 책을]KP께서]KP e_i [쓰-]]V-]VP- 시]HP-었]TP-다]FP

(72나)는 (72가)의 주어 조사구를 목적어 명사구 속에 이동시켜 본 것이다. 무작위 발화에서 후 발화 실수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문법적인 문장으로 쓰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e_i는 주어가 본래 있던 자리를 나타낸다. 이 공범주 표시는 어순 재배치가 혼적을 남기는 이동인지 어떤지에 대하여 어떠한 함축도 가지지 않는다. 그 곳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성분이 다른 곳에도 있음을 말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삼으려는 것은 왜 (72나, 다)와 같은 어순 재배치는 불가

57) 앞절이 시제 형태를 가지지 않으면서 시제 해석은 과거로 되어야 할 때, 점검 이론이 봉착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정미(1996)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국어 교착소의 기본적인 성격이다.

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순 재배치는 명사구(또는 조사구)가 굴절소구(IP)에 부가되는 것이거나(사이토[Saito](1985)적인 구조가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 굴절소구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는 것인데(윤종렬(1990, 1992) 참조), (72나, 다)는 이러한 착륙지(landing site) 조건을 어겨 비문법적인 것이 된 것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어순 재배치되는 요소가 왜 IP에 부가되는지 혹은 I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어순 재배치는 그보다는 훨씬 복잡한 이동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73) 가. 다행스럽게도 어제 철수가 영희에게 시치미를 딱 떼고 진지한 얼굴로 아주 새 책을 선물하기는 하였다.
 나. 어제 다행스럽게도 철수가 시치미를 딱 떼고 아주 새 책을 영희에게 진지한 얼굴로 선물하기는 하였다.
 다. 어제 철수가 시치미를 딱 떼고 아주 새 책을 다행스럽게도 영희에게 진지한 얼굴로 선물하기는 하였다.

(73나)는 ‘다행스럽게도’를 ‘어제’ 뒤로 옮기고, ‘시치미를 딱 떼고’를 앞으로 옮겨 ‘철수가’ 뒤에 위치시키고, ‘영희에게’를 ‘새 책을’ 뒤로 옮긴 것이다. ‘다행스럽게도’가 ‘어제’ 뒤로 이동한 것을, ‘어제’를 IP에 부가시킨 구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시치미를 딱 떼고’도 IP에 부가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주어를 넘어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V'에 부가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치미를 딱 떼고’의 본래 위치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V' 속에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73나)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성분이 동시에 좌우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의 경우, 그것을 원자적으로 파악하여 모두 IP에 부가되거나 I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제에 있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의를 지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73다)는 문장 부사어가 문장 속 뒷자리로 이동한 것이다. 어순 재배치를 IP-부가로 상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73다)에서 ‘다행스럽게’ 앞 성분이 IP에 부가되는 것으로 설명할 것이나, 부자연스러우며 직관에 어긋난다. ‘다행스럽게’가 그 자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만 같지 못

하다.

우리에게 있어 (72나, 다)의 문제는 단위 성분 속에 다른 성분이 어순 재배치에 의하여 삽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어순 재배치가 성분 구조를 파괴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다른 측면에 있어 단위 성분은 어순 재배치에 대하여 고도가 됨을 의미한다. 이를 ‘단위 성분 고도 조건’이란 이름으로 불러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74) 단위 성분 고도 조건 (1) (수정됨)

단위 성분은 어순 재배치에 대하여 고도이다.

(74)는 단위 성분 바깥에 있는 요소나 성분이 단위 성분 속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말한다. 이것은 아주 자명하여 거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는 직관적으로도 자연스럽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74)에서 우리는 어순 재배치의 측면에 있어서의 단위 성분만을 문제삼았으나, 이는 이동에 대하여 더 일반화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75) 단위 성분 고도 조건 (2) (수정됨)

단위 성분은 다른 요소의 이동에 대하여 고도이다.

(75)는 직관적으로도 자명하다. 이미 완성된 구조를 갖춘 성분 속으로 다른 성분이 끼어들지 못한다는 것은 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촘스키 문법의 이동 변형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예를 보기로 하자.

- (76) 가. “[[[e_i [[새 책을]KP [쓰-]]V-]VP-[아버지께서]KP_i - 시]HP-었]TP-다]FP
 나. “[[[아버지께서]KP e_i [쓰-]]V-]VP- 시]HP-[새 책을]KP_i - 었]TP-다]FP
 다. “[[[e_i 새 책-[아버지께서]KP-을]KP_i [쓰-]]V-]VP- 시]HP-었]TP-다]FP

(76가, 나)도 (72나, 다)와 같이 불가능한 어순 재배치 구조를 보인 것이다. (76가)는 주어가 동사와 ‘-(으)시-’ 사이에 끼인 것이며, (76나)는 목적어가 ‘-

(으)시-'와 '-었-' 사이에 끼인 것이고, (76다)는 '새 책'과 '을' 사이에 주어인 '아버님께서'가 끼인 것이다. 어느 것이나 완전한 의미의 비문이다. 이 비문성의 이유에 대해서도 이동의 착륙지 조건을 적용하여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75)의 '단위 성분 고도 조건'이다.

체언구 교착소 구성에서 체언구와 교착소 사이에 다른 성분에 속하는 어떠한 요소도 끼일 수 없고, 용언구 교착소 구성에서도 용언구와 교착소 사이에 다른 성분에 속하는 어떠한 요소도 끼일 수 없는 것은 (75)에서 말하는 성분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체언구와 교착소 사이보다는 용언구와 교착소 사이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분적 효과를 촉발하는 것은 잘 아는 바와 같이 형태소의 의존성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77) 교착소 구성의 성분적 효과

용언구 교착소와 체언구 교착소는 선행 형태와 함께 하나의 성분처럼 행동하는 효과를 가진다.

(77)은 분명히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이 통사적으로 성분의 자격을 가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저 위의 (72가)와 같은 구조를 전제로 하는 한, 원리적으로 '책을'이나 '쓰시었다'는 하나의 성분을 이루지 못한다. '쓰시었다'나 '책을'을 관할하는 교점이 위에서 하나의 교점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쓰시었다'나 '책을'을 하나의 성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구조에 대한 국어 화자의 불완전한 직관이 구조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이 직관이 (72가)와 같은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게 된다. 편의상 (72가)를 (78가)로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79가)에는 '새 책을'의 구조를 더 정밀히 보이기로 한다.

(78) 가. [[[아버님께서]_{KP} [[새 책을]_{KP} [쓰-]]_V]_{VP}-^A]_{HP}-^E]_{TP}-^D]_{FP}

나. [[아버님께서]_{KP}-[새 책을]_{KP}-[쓰시었다]_V

다. [[아버님께서]_{KP}-[[새 책을]_{KP}-[쓰시었다]_V]_V]_{VP}

(79) 가. [[[새]_{ADNP} [책]_N]_{NP}[을]_K]_{KP}

나. [새]_{ADNP} [[책]_{NP}[을]_K]_{KP}

(78나)는 (78가)가 세 부분으로 나뉨을 보인 것이다. [쓰시었다]가 하나의 성분처럼 인식된다. (78다)는 이렇게 인식된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V' 범주를 이룸을 보인 것이며, (79나)는 (79가)에서 '책을'이라는 성분이 조사구로 인식됨을 보인 것이다. (79나)는 결과적으로 조사구가 관형사구를 가지는 구조가 된다. (78가)가 (78나)와 같이 분석되는 것, (79가)가 (79나)와 같이 분석되는 것은 만치니[Manzini](1983:34)적인 의미에서 '재구조화(restructuring)'에 속하는 절차이다. (78나)나 (79나)는 (78가)나 (79가)와 달리 나무구조(tree structure)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며, (78나)나 (79나)는 단지 재구조화된 결과로 얻어지는 구조일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나무구조(tree structure)로 사상되는 어휘 항목이 있게 되는 것도 만치니[Manzini](1983:34)적인 '재구조화(Restructuring)'의 개념을 충족시킨다. (78나)의 '쓰시었다'와 같은 구성을 재구조화된 동사란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72나, 다), (76)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어순 재배치를 상정하여 문말 구성이 하나의 성분처럼 행동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제 어순 재배치에서 전형적인 예로 등장하는 예를 보기로 하자.

- (80) 가. 철수가 영희에게 새 책을 선물하였다.
- 나. 영희에게 철수가 새 책을 선물하였다.
- 다. 철수가 새 책을 영희에게 선물하였다.
- 라. 새 책을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하였다.
- 마. S[(철수가) (영희에게) (새 책을)] 선물하였다.

(80가-라)는 국어의 전형적인 어순 재배치 현상을 보인 것이다. (80마)는 이러한 현상을 포괄하여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을 만들어 본 것이다. S는 Scramble 을 뜻하는 함수이다. S[(철수가) (영희에게) (새 책을)]은 그 속에 포함된 성분이 자유롭게 자리를 바꿀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80마)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S 함수가 적용되는 영역이 재구조화된 동사(나아가 용언)를 제외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재구조화된 동사는 여기서 소극적인 '성분'의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나머지 성분'의 의미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81) 어순 재배치와 재구조화된 동사의 소극적인 성분성

재구조화된 동사는 어순 재배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는 의미에서 '나머지 성분'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

어순 재배치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구조는 (80)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구성이 존재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82) 가. 영희에게 새 책을 선물하였다, 철수가.

나. 철수가 책을 선물하였다, 영희에게.

다.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하였다, 새 책을.

(83) 가. 새 책을 선물하였다, 철수가 영희에게.

나. 영희에게 선물하였다, 철수가 새 책을.

다. 선물하였다, S[(철수가) (영희에게) (새 책을)]

(82)는 재구조화된 동사 뒤에 선행 문장 관련 성분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며, (83)은 선행 문장 관련 성분이 둘 또는 그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83다)는 재구조화된 동사 뒤에 세 개의 성분이 그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82)나 (83)과 같은 예들을 넓은 의미의 어순 재배치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세한 점에서 성격은 어순 재배치와 구별된다. 우선 어순 재배치에 작용하는 의미론적인 효과를 정보 가치의 변화로 보기로 하자.

(84) 어순 재배치의 의미론적인 효과

어순 재배치에 의하여 앞에 놓이는 성분은 구정보의 가치를 가지며, 뒤에 놓이는 성분은 신정보의 가치를 가진다.

임홍빈(1987:12)에서는 이를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주제화와 초점화인 것으로 특징지었다. (84)는 이를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순 재배치와 달리 (82)에서는 (84)적인 효과가 검출되지 않는다. (82가)에서 재구조화된

동사 뒤에 있는 ‘철수’는 신정보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미 전제된 대상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문제가 미묘해지는 것은 (83)과 같이 여러 성분이 동시에 후보충되는 경우이다. (83가)를 보기로 하자. 재구조화된 동사 뒤에 있는 ‘철수’와 ‘영희’는 후보충의 의미론을 충족시킨다. 이미 전제된 대상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충된 성분들 사이에서는 (84)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83가)에서는 특별히 강세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철수’가 ‘영희’보다는 구정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83나)의 경우에는 ‘철수’보다는 ‘새 책’이 신정보이다. 문장 전체로 보아서 이들은 이미 전제된 대상이고, 새롭게 확인되기 위하여 제시된 대상이지만 후보충된 대상이 여럿일 때,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어순 재배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83다)는 후보충된 요소들 사이의 어순 재배치 양상을 보인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재구조화된 동사가 하나의 성분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어의 어순 재배치가 가지는 다른 특성의 하나는 절-한계적이라는 것이다.⁵⁸⁾ 관련 제약을 (85)와 같이 보이고, 해당 예를 (86)에 보이기로 한다.

(85) 어순 재배치의 통사적 제약

어순 재배치는 절-한계적(clause-bounded)이다.

(86) 가. 나는 철수가 영희에게 새 책을 선물하기를 바란다.

나. 나는 [S[(철수가) (영희에게) (새 책을)] 선물하-] 기-를 바란다.

다. *나는 [ei 영희에게 선물하-]-기-를 철수가 바란다.

라. 나는 [ei 영희에게 새 책을 선물하-]-기-를 바란다, 철수가]

마. 나는 [ei ej ek 선물하-]-기-를 바란다, S[(철수가) (영희에게) (새 책
k을)]

(86나)는 S 영역 내에서 그에 포함되는 각 성분이 자유롭게 그 위치를 바꿀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85)의 제약이 잘 준수되고 있다. 반면 (86다)는 국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없다. (85)의 제약을 어긴 전형적인 경우이다. ‘철수가’가 해당 절 바깥에 있는 것이다. 무단히 다른 절 속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58)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 경우 그것은 (75)의 단위 성분 고도 조건을 어긴다. 이와는 달리 (86라)는 문제의 성분이 문제의 절 바깥에 있는데도 성립 가능하다. 어순 재배치가 아니라 '후보충'이다. (82), (83)과 성격이 같다. 내포절에 포함된 성분이 후보충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86마)와 같이 재구조화된 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포절 성분이 후보충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충된 성분들은 (86마)에 보인 바와 같이 서로 자유롭게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 의미론적인 효과도 (84)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후보충 자체는 어순 재배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성분이 후보충될 때, 후보충된 성분들 사이에는 어순 재배치적인 효과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내포절에 남은 요소를 보기로 하자. (86마)에 주어진 바와 같이 분석한다면, 내포절에 남는 요소는 '선물하-'가 된다. 그러나 국어의 직관은 이를 하나의 성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동안의 문법 분석의 관행은 '선물하기'를 하나의 성분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하나의 성분으로 재구조화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87) 가. 새 책k을, 나는 [철수가 영희에게 ek 선물하]-기-를 바란다.
 나. 새 책k을 영희에게, 나는 [철수가 ej ek 선물하]-기-를 바란다.
 다. 철수i가 새 책k을 영희j에게, 나는 [ei ej ek 선물하]-기를 바란다.
 라. S[(철수i가) (새 책k을) (영희j에게)], 나는 [ei ej ek 선물하]-기를 바란다.
 마. *새 책을, 나는 어제 학교에서 오다가, [철수가 영희에게 ei 선물하]-기-를 희망하였다.

(87가)는 내포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분 '새 책을'이 문두에 쓰인 예를 보인 것이다. 나타난 현상에만 의하면, (87가)는 (85)의 제약을 어긴다. (85)가 어순 재배치의 정의적 속성이라면, (87가)는 어순 재배치의 예가 되지 못한다. (87다)는 대부분의 내포문 성분이 자기 절을 떠나 문두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포괄하여 형식화하면, (87라)와 같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앞에 보인 S 함수가 (80마), (83다), (95마)에도 나타났던 것임을 알고 있다. 그것은 분명 어순 재배치적인 성격과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아주 자유

롭게 그들 서로는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 때 우리에게 주목되는 것은 (87마)와 같은 예이다. (87마)는 (87가-라)의 ‘나는’이란 성분을 더 확대하여 완전히 상위문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 본 것이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87가-라)의 ‘나는’이 삽입 성분임을 의미한다. (87가)는 문제의 성분이 문두에 이동한 것이 아니라, 어순 재배치 구성 속에 ‘나는’이란 삽입 성분이 개재한 구조인 것이다. (87가)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그 구조를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88) 가. 나는 [새 책을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하기]를 바란다.
 나. [새 책을, 나는,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하기]를 바란다.

(88가)는 ‘나는’이 제자리에 있는 구조를 보인 것이며, (87나)는 ‘나는’이 상위 절을 떠나 내포절 속에 무단히 침입한 것이다. 이는 (85)의 제약에 대한 위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88나)가 보이는 현상은, 삽입 성분은 단위 성분 속에도 삽입될 수 있으므로, (75)를 수정하게 한다.

(89) 단위 성분 고도 조건 (3) (최종안)

단위 성분은 고도이다. 단, 삽입 성분은 단위 성분 안으로 침입할 수 있다.

(89)는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동안 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따름이다. (87가-다), 즉 (87라)는 (80마)와 동일한 현상으로 특정지어질 수 있다. 재구조화된 동사가 하나의 성분처럼 인식되는 것이다.

재구조화된 동사란 엄격한 통사적 분석에 의하여 생겨나는 범주가 아니다. 그것은 단위에 대한 편의상의 인식, 일반인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단위이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나머지 성분’의 성격을 가지는 정도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90) 교착소 구성의 재구조화

국어의 통사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흔히 국어의 용언구 교착소와 체언구 교착소는 선행 요소와 함께 재구조화되어 하나의 성분처럼

인식된다.

(90)은 그 내용이 (77)과 다를 바 없다. 그 성격을 ‘재구조화’로 명시한 것이 다르다면 다른 것이다. 여기서 재구조화된 구조는 통사적인 구조에 작용하는 일반인의 직관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생겨난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 그 구조의 상정은 언제나 분석의 부정확성을 전제로 한다. (90)과 같은 재구조화에 의하여, 인식상 통사적인 구성이 형태론적인 단위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사적 구성의 전환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91) 통사적 구성의 전환

위의 (90)과 같은 재구조화 과정에 의하여, 통사적 구성은 인식상 형태론적 구성으로 전환된다.

국어의 굴절, 즉 활용이나 곡용은 (91)과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말에 상정된 문법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다음과 같은 문답으로 국어의 곡용과 활용의 원리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기로 하자.

- (92) 가. 물음 1: 원리적으로 국어에 활용 범주나 곡용 범주, 즉 굴절 범주와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 나. 대답 1: 원리적으로 국어에는 굴절 범주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어에 있는 것은 오직 체언구와 용언구 뒤에 통사적 요소로서 교착소가 첨가되는 현상이다.
- 다. 물음 2: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활용이나 곡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라. 대답 2: 그것은 통사적 구성을 일반인의 직관에 따라 재구조화하여 ‘용언 + 교착소’ 구조 및 ‘체언+교착소’ 구조를 형태론적인 단위처럼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약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국어적인 특성의 많은 회생 위에 서구어적인 문법 틀에 국어를 맞춘 것이다.
- 마. 물음 3: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굴절 범주에 의한 국어 문법의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가?
- 바. 대답 3: 궁극적으로 그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굴절이란 굴절어에 성립하

는 것이고 그에 적합한 것이다. 교착어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기술 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굴절어 문법적인 설명 방식을 원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특히 교육의 장에서는 불가피한 방안이다.

(92바)와 같은 고려는 학교 문법의 체계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학교 문법은 곡용을 인정하지 않고 활용을 인정한다. 국어 문법에 활용을 설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곡용을 설정하지 않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활용을 인정하는 것이 곡용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게 되는 이유의 전부는 그 어간의 의존성에 있다. 체언은 의존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언구 교착 소와의 관계가 덜 밀접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활용이 설정된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으로 타당한 이유는 활용 체계에서 찾아야 한다. 활용 체계는 결국 개개의 교착소의 기능 의미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개개의 형태가 독자적인 기능 단위임을 의미한다. 활용 체계라는 것을 몇 가지 큰 부류로 세우면, 그들은 곧 단순한 교착소의 집적과 같은 것이 되게 된다.

여기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학교 문법에서 선문말 교착소를 어미의 하나로 다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활용이라는 것에는 선문말 교착소를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문말 교착소를 연결시키는 모든 것이 포함되게 된다. 이 복잡성의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93) 가. 잡다, 잡으오, 잡네, 잡고, 잡지, 잡게, 잡으면, 잡을수록, 잡는데, 잡기, 잡음, 잡은, 잡을, …
- 나. 잡았-, 잡는-, 잡겠-, 잡으시-, 잡사오-, 잡았었-, …
- 다. 잡았겠-, 잡겠었-, 잡았겠었-, 잡으시었-, 잡으시겠-, 잡으시었었-, …
- 라. 잡았다, 잡았소, 잡았네, 잡았고, 잡았지, 잡았게, 잡았으면, …
- 마. 잡았겠다, 잡았겠소, 잡았겠네, 잡았겠고, 잡았겠지, 잡았겠으면, …

(93가)는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동사의 어간, 즉 우리에게 있어 재구조화된 동사의 어간에 문미 교착소가 연결된 것이며, (93나)는 재구조화된 동사의 어간에 선문미 교착소 하나만이 연결된 것이고, (93다)는 선문미 교착소 둘 이상이

연결된 것이다. 어간에 어미가 연결되는 것이 활용이라고 한다면, (93나, 다)도 활용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93나, 다)와 같은 예를 활용이라고 불러 본 일은 사실상 없다.

적어도 (93라, 마)와 같이 문미 교착소를 가지는 경우에만 활용이라는 술어를 적용해 온 것이다. 그것이 국어학의 관행이다. 이 관행에서 활용이라는 개념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문미 교착소의 연결이다. 따라서 동사의 어간과 선문미 교착소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다시 재구조화(re-structuring)란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말한다. ‘잡-’에 몇 가지 교착소가 연결된 형식을 예로 들기로 한다.

- (94) 가. 재구조화된 동사 : 잡았다, 잡으시었다, 잡더라, 잡으시겠었다, 잡겠다, 잡았었다, 잡았겠다, 잡으오니, 잡았사오니, 잡겠었고, 잡았겠더라, 잡았기, 잡았음, 잡았을 등등.
- 나. 재구조화된 동사의 기본 어간 : 잡-.
- 다. 재구조화된 동사의 재구조화된 제1차 어간: [잡았]-, [잡으시]-, [잡더]-, [잡겠]-, [잡으오]- 등등.
- 라. 재구조화된 동사의 재구조화된 제2차 어간: [잡으시었]-, [잡으시겠]-, [잡았었]-, [잡았겠]-, [잡겠었]-, [잡았사오]- 등등.
- 마. 재구조화된 동사의 재구조화된 제3차 어간: [잡으시었겠]-, [잡으시겠었]-, [잡았었겠]-, [잡았겠었]-, [잡겠었]-, [잡았겠사오]- 등등.
- 바. 재구조화된 동사의 재구조화된 제4차 어간: [잡으시었겠더]-, [집으시겠었더]-, [잡았었겠더]-, [잡았겠었더]-, [잡겠었더]-, [잡았겠사옵더]- 등등.

(94가)는 (90)과 같은 ‘재구조화’ 절차에 의하여 생겨난 동사 구성이다. 이를 우리는 ‘재구조화된 동사’란 이름으로 불렀다. 이에 의하여 이 구성은 인식상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전환된다. (91)에 의한다. (94나)는 이 재구조화된 동사의 기본 어간을 보인 것이다. 동사가 교착소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형식이다. (94다)는 이 재구조화된 동사의 기본 어간이 선문미 교착소를 하나만 가진 형식을 보인 것이다. 이에 적용되는 재구조화는 그것을 하나의 ‘어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생겨난 것이 ‘재구조화된 어간’이다. 같은 원리

에 의하여 (94라-바)에서는 제2차 어간, 제3차 어간, 제4차 어간이 생겨난다. 이는 순수히 선문미 교착소의 개수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상의 명칭이다. 기능상의 명칭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시다’에서 ‘계시-’를 어간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재구조화가 통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선문미 교착소의 순서에 대해서도 어떤 일반화가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의 관심은 단지 원리적인 데 국한된다. 선문미 교착소와 또 다른 선문미 교착소 또는 선문미 교착소와 문미 교착소를 하나의 형태소적인 존재로 파악하게 되는 것은 이 구조에 다시 재구조화가 적용된 것이다.⁵⁹⁾ ‘-읍-’을 하나의 형태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더라, -ㄴ다, -읍니-, -음/음’ 등을 하나의 형태소로 보려는 견해도 그 정당성의 문제가 있으나, 이와 같은 작용의 산물이다.

(94)와 같은 재구조화의 상정은 국어에서 활용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물론 활용의 개념을 상정할 때의 문제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착소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문제되고, 연결상의 특징이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

최현배(1937)에서 우리의 선문미 교착소에 해당하는 형태를 ‘보조 어간’이라 하고 그것을 어간의 일부로 삼은 것은 재구조화 절차를 직접 염두에 둔 것은 아니겠으나 그와 유사한 인식을 바탕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피동, 사동의 접미사를 보조 어간에 포함시킨 것도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구조화된 어간이 일종의 파생으로 인식될 가능성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어미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굴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파생도 아닌 것이다.

후지사와(1996:127)에서도 이 문제에 재구조화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잡-’과 같으면, ‘잡-’ 자체가 어기가 되고, ‘잡으-’가 기본 어간으로 제2 어기가 된다. 여기에 ‘-(으)시-’가 붙어 ‘잡으시-’가 되고 다시 ‘-아/어’가 붙어 제3 어기(존경 어간)가 된다. ‘잡으셔’에 과거 접사 ‘ㅆ’이 붙은 것이 ‘잡으셨-’이며, 여기에 0가 붙어 제1 어기(과거 어간)가 되고, 다시 ‘-겠-’이 붙으면 ‘잡으셨겠-’이 되는데 여기에도 0가 붙어 제2 어기(개연성 어간)가 되고 그 뒤에 어미가 붙는 것이

59) 서태룡(1988:19)에 적용된 재구조화 개념은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된다. 재구조화를 '잡으-'와 같은 기본 어간에 작용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이다. 재구조화를 상정하는 것이 우리와 흡사하고 그 성격도 우리와 흡사하나, 논의의 구체적인 양상은 우리와 구별된다. 우리에게 있어 재구조화는 통사적인 구성을 형태론적인 구성화하는 데 작용하는 것이며, 재구조화된 동사에 작용하여 다시 재구조화된 어간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후지사와 (1996)에서 매개 모음이나 Ø가 붙어 이루어지는 제1 어기, 제2 어기 등은 형태소 분석과 관련되는 측면으로 이해된다.

7. 결론

국어에 굴절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논의에서 제기한 문제이다. 용언이 활용을 한다고도 하고, 체언이 곡용을 한다고도 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용언의 활용만을 인정하고 체언의 곡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자체만으로도 국어의 굴절은 반쪽의 굴절만을 가지는 것이 된다.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놓이는 관형사가 굴절을 하는 일이 없으므로, 굴절이라 하면, 곧 용언의 활용을 뜻하게 된다. 그렇다면 용언이 활용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어 문법에서 이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도 드물다고 할 것이다. 국어 문법의 핵심적인 사실이 모두 이 문제의 주변에 얹혀 있고, 그것이 국어의 문법을 기술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장 원리적인 입장에서 국어는 굴절어인가 하는 물음을 던졌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세계 언어의 형태론적 유형론이 아직도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어를 굴절어로 특징지을 수는 없다. 국어가 교착어라는 사실을 자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직관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국어의 용언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야 할 것인가? 용언에 관한 한, 국어는 굴절어와 다름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국어는 절대로 굴절어가 아니다. 그러면 서도 용언에 굴절을 인정하는 것은 그 고유한 성질에 반하는 체계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은 중국어 동사가 굴절을 한다고 말하는 것 이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국어는 중국 어와 달리 어미 변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이 만들어 낸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널리 일반화되어 있는 문법은 최현배(1930, 1937) 문법이다. 최현배(1930)은 우리 문법에서 활용 범주를 확립한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최현배(1930)에서 조사를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고 어미를 품사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의 전부는 조사는 어미와 달리 분리성과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최현배(1930)의 이와 같은 처리법은 이보다 활센 전 언더우드(1890)에서 짙튼 것이다. 언더우드(1890)는 왜 곡용을 상정하지 않았는가? (11나)는 그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제공한다. 국어의 조사를 모두 포괄하는 곡용 범주의 상정이 불 가능했던 것이다. 명사에 붙는 수많은 단어 부류 중 자의적으로 몇 개만을 선택 하여 격 굴절을 상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로 보았던 것이다. 조사 중 격 범주에 해당하는 형태만을 모아 곡용 범주를 설정한 것은 램스테트(1939)이다. 그렇다면 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 범주의 설정이 가능했던 것인가? 어미 모두 를 포괄할 수 있는 활용 범주가 서구어 문법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미는 조 사보다 그 문법적 기능이 서구적인 활용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또 기능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국어에 곡용이나 활용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정의 성격을 띠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착어에 속하는 국어의 문법을 굴절어 문법으로 기술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리적으로 국어에 활용이나 곡용과 같은 굴절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정확한 것일 수 없다. 국어의 어미는 용언에 붙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용언구(종래의 문장 구성)에 붙는다. 활용을 인정한다면, 문장이 활용을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인구어적인 문법론의 테두리 속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문장이 아니다. 그러나 국어의 경우 어미는 분명히 문장에 연결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이를수록 점점 분명해진다.

국어는 절대로 굴절어가 아닌 것이다. 국어는 세계 언어의 형태론적인 분류가 말해 주듯이 교착어이다. 국어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굴절법(infection)이 아니라 '교착법(agglutination)'이다. 교착법을 이루는 중추적 요소는 굴절소(in-

flectional element)가 아니라, 당연히 ‘교착소(agglutinative element)’가 되어야 한다. 종래 활용이라 했던 것은 “용언구 교착”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하며, 곡용 혹은 체언에 조사가 붙는 것은 “체언구 교착”이 되어야 한다. 체언구에 붙는 교착소는 ‘체언구 교착소’와 같이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용언구에 붙는 교착소는 ‘용언구 교착소’와 같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어의 교착소가 통사적인 존재이며, 그 자체 고유한 기능 의미적인 특성을 가지는 존재임을 중시하였다. 통사적인 존재라는 것은 통사적인 구성에 연결되어 다시 통사적인 구성을 형성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어말 어미(우리의 선문미 교착소이다)가 파생이나 글절의 어느 범주에도 정확하게 속하는 것이 아님을 중시하였다. 파생이나 글절은 어느 것이나 형태론적인 현상이다. 서술어에 선문미 교착소가 연결되는 것이 파생의 형태론은 될 수 없다. 교착소의 연결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글절인가? 정확하게 글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특징짓기도 어렵다. 선문미 교착소가 겹칠 수 있는 것, 어휘 고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이 통사적인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선문미 교착소가 때로 선행 서술어의 의미역 틀에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 있는 것은 글절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 선문미 교착소가 되풀이되어 쓰일 수 있는 것, 선문미 교착소들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은 정확하게 파생의 형태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글절의 형태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국어의 교착소가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통사적 존재로서 작용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교착소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관련 의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국어의 교착소들이 계층적으로 연결됨을 뜻하는 것이다.

국어의 교착소들이 가지는 이러한 특이성은 최근의 통사적 현안들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국어 문장 구조의 생성을 위하여 동사-인상이 행해져야 할 것인가? 동사가 인상되어 일치소와 융합한다는 하나의 과정만을 보기로 하자. 동사-인상의 동기는 형태론적 의존성이라 한다. 그러나 국어의 교착소는 절대로 형태론적인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형태론적인 동기에 의하여 인상되거나 이동되는 존재가 아니다. 조사구에 있어서도 명사구의 핵을 이동시키는 변형과 같은 것을 상정하는 것도 국어의 특성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어의 교착소는 통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국어에는 AGR과 같은 일치소가 존재하는가? 주어의 어떤 자질과 기계적으로 일치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국어에 없다. 더구나 그것이 주어에 주격을 배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논의는 교착어의 성격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교착소는 그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주격 조사가 그 자체의 고유한 기능에 의하여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지, 다른 요소에 의하여 그 존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국어에 부정소구(NegP)와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교착소와 동렬에 서는 부정소구라는 것은 없다. 그 이유는 아주 자명하다. ‘아니, 못, 아니하다, 못하다’ 등은 절대로 교착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명백한 의미에서 어휘 항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최근의 통사론은 국어의 활용형을 어휘부에서 만들어 도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소 이론적인 접근이나 GPSG나 HPSG, 혹은 어미 부분을 접사와 유사한 것으로 도입하기도 하나 LFG에서도 유사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이러한 처리가 편의적인 것인지 원리적인 것인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교착소 결합을 원리적으로 어휘부에서 만들어 도입하는 것은 국어 교착소의 통사적인 성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편의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언어학을 편의상 해도 되는가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교착소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점검될 필요가 있는가? 점검될 필요가 없다. 교착소는 그 자체가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어떤 문장에 ‘-(으)시-’가 쓰였다면, ‘-(으)시-’의 쓰임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은 통사적으로는 바로 그 자체밖에 없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언과 교착소, 체언과 조사는 하나의 단위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이 있다. 여기에 적용된 것은 단위 성분 고도 조건 및 어순 재배치 현상이나 후보충 현상 등이었다. 국어에는 ‘용언+교착소’ 및 ‘체언+교착소’ 구성이 하나의 성분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기술할 여지가 있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나머지 성분성’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통사적인 구성을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바꾸는 것은 재구조화 절차이다. 이에 의하여 ‘용언+교착소’ 및 ‘체언+교착소’ 구성이 하나의 성분처럼 인식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의하여 재구조화된 동사나 형용사가 탄생된다. 물론 재구조화된

체언도 탄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식상의 문제이다. 이들의 결합 관계를 굴절, 즉 활용이나 곡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교착어 문법을 굴절어 문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어에 활용을 설정한다고 하여 보자. 이 경우, 선문미 교착소와 문미 교착소 모두를 어미로 하는 활용 체계를 상정하는 것은 활용의 패러다임조차 세우기 어렵게 한다. 활용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재구조화된 용언을 분석하여 재구조화된 어간과 어미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재구조화된 제1차 어간, 재구조화된 제2차 어간 등이 탄생되게 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방법에 의한다.

국어에서 활용이나 곡용을 설정하여 문법을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 때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것이며, 교착어 문법을 굴절어 문법의 틀에서 기술하는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하고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어적인 문법 범주가 국어에 실제로 있는 것과 같은 환상에 빠질 위험이 있다.

참고 문헌

- 가토[Kato, Y.](1985), "Negative Sentences in Japanese," *Sophia Linguistic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9, Tokyo: Sophia University.
- 강명운(1995), "현대 언어학 이론에 기초한 국어 통사론 연구,"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창과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강영세(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한신문화사.
- 강창석(1985), <활용과 곡용에서의 형태론과 음운론>, 『울산어문논집』 2, 울산대.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 서술과 문법 체계』, 일지사.
- 고영근(1995),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 구본관(1992),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에 대하여>, 『국어학 논집』 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1995),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김두봉(1916), 『조선말본』, 신문관.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8책, 탑출판사.

- 김두봉(1923), 『김더 조선말본』, 신문관.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8책, 탑출판사.
- 김민수(1954), <국어 문법의 유형: 국어 문법사 시고>, 『국어국문학』 10, 국어국문학회.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말본론』, 탑출판사.
- 김승곤(1993), <활용문>, 『외솔의 국어학과 그 영향』, 한글학회.
- 김영주(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나이다[Nida, E. A.](1946/2nd edition:1978),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남기심(1980), <국어 문법 연구사에서 본 우리 말본>, 『동방학지』 25.
- 남기심·고영근(1985/개정판:1993),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람스테트[Ramstedt, G. J.](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래드포드[Radford, A.](1981), *Transformational Syntax: A Student's Guide to Chomsky's Extended Standard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서정목·이광호·임홍빈 역(1984), 『변형 문법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 래드포드[Radford, A.](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서정목·이광호·임홍빈 역(1990), 『변형 문법』, 을유문화사)
- 리델[Ridel, Felix-Clair](1881),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참고] 『역대 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6책, 탑출판사.
- 로니[Rosny, L. de](1964),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 *Journal Asiatique ou Recueil de Mémoires*, 6 ser. t. 3.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7책.
- 마틴[Martin, S. E.](1954),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 만치니[Manzini, M. R.](1983), "Restructuring and Reanalysis," Ph. D. dissertation, MIT.
- 박승빈(1931), 『조선어학 강의 요지』, 경성: 보성전문학교.

- 박승빈(1935), 『조선어학』, 조선어학연구회. 통문관에서 1972년 복사판 간행.
- 박승빈(1937), 『간이 조선어 문법』, 조선어학연구회.
- 박양규(1975), <존칭 체언의 통사론적 특징>, 『진단학보』 40, 진단학회.
- 박진호(1994), <선어말 어미 '-시-'의 통사 구조상의 위치>, 『관악어문연구』 1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브레스넌[Bresnan, J.](1974), "On the Position of Certain Clause-particles in Phrase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5:4.
- 사이토[Saito, M.](1985), "Some Asymmetries in Japanese and Their Theoretical Implications," Ph. D. dissertation, MIT.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1996), 『고등학교 문법』, [참고] '학교 문법 [1996]'으로 지칭.
- 서정목(1984), <의문사와 WH-의문 보문자의 호응>, 『국어학』 13, 국어학회. 서정목(1994) 재록.
- 서정목(1987), <경남 방언의 의문문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목(1988),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1), 『국어학』 17, 국어학회. 서정목(1994) 재록.
- 서정목(1993), <한국어의 구절 구조와 엑스-바 이론>, 『언어』 18:2, 한국언어학회. 서정목(1994) 재록.
- 서정목(1994), 『국어 통사 구조 연구 I : 구절 구조, 의문법, 경어법』, 서강대학교 출판부.
- 서정수(1989), <분석 체계와 종합적 체계의 재검토>, 『주시경학보』 4, 탑출판사.
- 서태룡(1988), 『국어 활용 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 서태룡(1990), <활용어미>,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석경장(1976), <The Syntax of Sentence Ender>, 『어학연구』 1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5),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참고] '학교 문법[1985]'로 지칭.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1),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참고] '학교 문법[1991]'로 지칭.
- 스칼리스[Scalise, S.](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s. (전상

- 범 역(1987), 『생성 형태론』, 한신문화사).
- 신수송·류수린(1995), 『어휘 기능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안명철(1992), <현대 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병희(1959), <15세기 국어의 활용 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국어연구회.
- 안병희(1978), 『15세기 국어의 활용 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안희돈[Ahn, Hee-Don](1991), *Light Verbs, VP-Movement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양동희(1994), 『문법론』, 한국문화사.
- 언더우드[Underwood, H. G.](1890), 한영문법: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3책, 탑 출판사.
- 유동석(1993), <국어의 매개 변인 문법>,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동석(1995), 『국어의 매개 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 윤정미[Yoon, J. M.](1990), <Verb Movement and the Structure of IP in Korean>, 『어학연구』 26:2.
- 윤정미[Yoon, J. M.](1996), <Verbal Coordination in Korean and the Checking Approach to Verbal Morphology>, 『언어』 21:4, 한국언어학회.
- 윤종렬[Yoon, Jong-Yurl](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Hanshin Publishing Co.
- 윤혜석[Yoon, J. H. S.](1991), "Inflectional Structures in Korean and Headedness," *Studies in Linguistic Sciences* 21:2.
- 이기용(1997), <국어의 매개 모음과 용언의 축약형 분석과 생성>, 『국어학』 29, 국어학회.
- 이동재[Lee, Dong-Jae] (1992), "Korean Verb Inflectional Paradigm V-I-USI-ESS-ESS-KEYSS-TE-", *Korean Linguistics* 7.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이병근(1979), 『음운 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 이병근(1987), <음운 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 『국어학』 3, 국어학회.
- 이성범[Lee, Sung-Bum](1990), "The Scope of Some Inflectional Elements in

Korean Coordinate Constructions," *Korean Linguistics* 6.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이승녕(1961), 『중세 국어 문법』, 을유문화사.

이승옥(1963), <의문 첨사고>,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이승옥(1973)에
재록.

이승옥(1973), 『국어 문법 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이익섭 · 임홍빈(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이정민(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an Korea Book Corporation.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 구문 연구』, 탑출판사.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
구소.

임홍빈(1976), <부사화와 대상성>, 『국어학』 4, 국어학회.

임홍빈(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국어학회.

임홍빈(1983), <국어의 '절대문'에 대하여>, 『진단학보』 56, 진단학회.

임홍빈(1984),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억양>, 『말』 9, 연세대 한국어학당.

임홍빈(1985가), <현대의 {-삼-}과 예사높임의 '-오'에 대하여>, 『선오당 김형기선
생 팔칠기념 국어학논총』, 창학사.

임홍빈(1985나), <{-시-}와 경험주 상정의 시점>, 『국어학』 14, 국어학회.

임홍빈(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임홍빈(1988가), "국어의 활용에 대한 통사적 기술", 1988년 2월 12일, 한국언어학
회 겨울연구회의 통사론 토론회에서의 주제 발표 논문.

임홍빈(1988나), <'무슨'과 '어떤'-의문에 대하여>, 『말』 13, 연세대 한국어학당.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임홍빈(1992), <북한의 문법론>, 『어학연구』 28:3, 445-597. 서울대학교 어학연구
소.

임홍빈(1997), 『북한의 문법론 연구』, 한국문화사.

임홍빈 · 장소원(1995), 『국어 문법론』 1, 한국방송통신대학.

장석진(1993), 『정보 기반 한국어 문법』, 도서출판 언어와 정보.

조재옥 · 모간[Cho, Jae Ohk & Jerry Morgan](1988), "Case and Coordination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5.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조지현·박수혁[[Joh, Jeehyun & Park Soohyuck](1993), "Verb Raising, Negation, and Copy Theory in Korean Coordinate Structure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ed. by S. Kuno et al.,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주시경(1910), 『국어 문법』, 박문서관. 참고: 역대한국어문법대계 제1부 제4책.

촘스키[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촘스키[Chomsky, N.](1986), *Barriers*, The MIT Press.

촘스키[Chomsky, N.](1988),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MIT Working Papers* 10, MIT.

촘스키[Chomsky, N.](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The View from Building 20*, ed. by K. Hale and J. Keyser, The MIT Press.

촘스키[Chomsky, N.](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umber 5, MIT.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연희전문학교 문과연구집』 제1집: 조선 어문연구, 연희전문학교출판부.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최현배(1959), 『김고 고친 우리말본』, 정음사.

최현숙[Choe, Hyon-Sook](1986), "AGR, Control and Multiple Identical Case Construction," ms. 한학성(1993) 참조.

최현숙[Choe, Hyon-Sook](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A Transformational Approach*, Seoul: Hanshin Publishing Co.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사들(1881),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6책, 탑출판사. 리델[Ridel, F.](1881)로 나타냄.

폴록[Pollock, J.-Y.](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3.

학교 문법[1985]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5)

학교 문법[1991]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1).

학교 문법[1996]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1996).

한학성[Han, Hak-Sung](1987),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Hanshin Publishing Co.

한학성(1993), <한국어의 AgrP NegP>, 『언어』 18:2, 한국언어학회.

허 응(1963), 『언어학 개론』, 정음사.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허 응(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홍기문(1947), 『조선 문법 연구』, 서울신문사.

후지사와 후미토[후미또](1996), 『현대 한국어의 형태론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